Weekly 공감

더 큰 대한민국

No.55
2010.04.07



누군가는 부표를 달아야 한다

“내가 들어간다”

故 한주호 준위, 전설이 되다

청년취업 희망이 보인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그린스포츠’ 원년

"깨끗한 강에서 살고 싶어요"

한강을 청소하자 황복이 돌아왔습니다.

영산강의 은어도, 낙동강의 큰가시고기도

맑고 깨끗한 집이 필요합니다.

4대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입니다.

강을 깨끗이 청소해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 김영민

아름다운 사나이, 한주호

문정희 시인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검게 출렁이는 바다, 사방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춥고 빠른 물살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다가 순직한 노병(老兵)의 죽음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어쩜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아들에게 말했고, 이제 입수(入水)를 중단하라는 아들의 걱정을 들었다. 그는 왜 무엇 때문에 그 차갑고 거친 바다에 운명을 걸었을까. 그의 최후가 천안함의 비극과 겹쳐진 것을 단순히 '추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가 바다에 몸을 던져 웅변한 생애의 숭엄하고 아름다운 가치가 하루 종일 내 귀를 때리는 듯했다.

"정신이 용감한 사람은 홀로 싸우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한 이는 마하트마 간디였던가. 한주호 준위. 그는 진정 용기 있고 당당한 열정의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마지막 잠수를 하였다. 그에게 그 잠수는 무엇이었고, 군인이란 신분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 다이빙의 순간, 그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신념을 사는 참사람의 모습 그 자체였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아직 미궁투성이여서 답답하고 숨이 막히지만,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난 한 눈부신 영혼이 지르는 함성만은 똑똑히 들었다.

공무도하(公無渡河)! 만류하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강으로 뛰어든 저 고조선 시대 열정의 백수광부(白首狂夫)였을까. 흰 머리칼 강바람에 휘날리며 물속으로 뛰어든 신화 속의 아름다운 사나이를 자꾸 그와 겹치어 떠올려 보게도 된다. 그가 바다로 뛰어들어간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도 있을 것 같다. 아까운 생명들이 구조를 기다리는 저 거친 바다는 군인인 그에게 자신의 안위를 거침없이 내던져버려도 좋을 사명이요, 용기요, 꿈이 아니었을까.

한 준위는 18세에 입대하여 35년간 군복을 입은 뼛속까지 군인이었다고 한다. 수중폭파대(UDT)로 평생을 살아왔으니 위험이 있는 바다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던 셈이다. 그는 누구보다 목숨의 소중함과 두려움과 위험함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가족들의 기도와 눈물을 가슴 깊이 간직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그의 마지막 다이빙은 이름 없는 영웅의 비상(飛翔)이었다. 아까운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저 없이 위험 속으로 자신의 전부를 던져버린 그의 선택은 명리(名利)와 계산과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을 뻔한 잇속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반성이요, 질책이요, 감동이었다.

그는 천안함 사고 소식을 듣고는 자원하여 현장으로 갔다. "내가 베테랑이니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며 젊은 후배들 앞에서 단련된 정신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위기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군함을 집어삼킨 그 바다에 그렇게 허술한 장비와 힘든 조건을 견디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전문가였다. 그래서 그의 희생이 더 값진 것이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준 사랑과 희생, 입으로 부르짖는 애국이 아니라 겸손과 실천으로 보여준 눈부신 영혼의 던짐이 애국이라는 말에 거룩한 무게를 더한다.

한 준위의 죽음은 깊은 바닷속 수압이 높아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질소기체가 체외(體外)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혈액 속에 녹게 된 것이 직접 원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허술한 주위 상황과 낡은 장비를 탓해보기도 하고, 해군의 열악한 현실을 탓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어떤 말로도 아까운 한 목숨을 다시 살려놓지는 못할 것이다. 같은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인을 가장 크게 사랑하고 위로하는 길은 무엇인가. 훈장이나 성대한 장례보다도 그가 그토록 간절히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뛰어들었던 46명 실종자에 대한 소식일 것이다. 차가운 바다 밑에 있는 장병들을 하루빨리 다시 뭍으로 데려오는 것이리라. 그리고 천안함의 침몰부터 구조까지 전 과정을 하루빨리 명백히 밝히는 것이리라. 실종자 가족에 대한 진심 어린 위로를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리라. 모처럼 '참사람'을 보여주고 떠난 고인의 영면(永眠)을 기원하며 남은 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 G

*이 글은 조선일보 4월 1일자 칼럼을 필자의 허락을 얻어 게재한 것입니다.

Weekly
2010.04.07
No.55(통권 156호)



표 지 이 야 기

故 한주호 준위의 마지막 모습.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Contents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04.07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mcst.go.kr KOR 문화체육관광부

기 획 특 집

바다 영웅들의 위국헌신

온 국민이 백령도 앞 깊고 푸른 바다를 향해 기원한다,
마흔여섯 장병의 귀환을. 천안함에 탄 이들은
우리의 아들, 형제, 가족이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해군특수전여단 대원들은 시계
제로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영원한 UDT' 한주호 준위.
탁류와 냉기에 맞서던 그는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아비와 같이 우리 곁을 떠났다.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대한의 아들이며,
이들에겐 또 다른 소명이 기다리는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56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54호(3월 31일자) 기획특집 '4대강살리기는 생명살리기'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4대강 살려 지역경제, 국가 살림 풍요로워지길"

"'강을 살려야 사람이 산다'를 읽고 치수사업이 단순히 홍수나 가뭄을 예방할 뿐 아니라 오염된 수질과 주변 환경을 개선하며 삶의 질까지 향상시킨다니 새삼 치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강을 중심으로 치수나 관개사업을 펼쳐 지역경제를 살리는가 하면 국가의 살림까지 풍요롭게 했다니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_우도형

"'4대강 생명살리기 너를 보여줘' 기사를 유심히 봤습니다. 거대한 페인트 통에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사진이 인상 깊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강 상류인데도 축산폐수나 생활하수가 흘러들어 오염된 곳이 많더군요. 하천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_동강사랑

"이번 주 기획특집을 보고 4대강살리기가 단순히 토목사업이 아니라 수질과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첨단과학기술까지 동원해 복합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개발만이 아닌 다목적이고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면 조금의 의혹도 생기지 않게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4대강살리기가 물 관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하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면 지금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여론도 진솔한 호소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_우정렬

"4대강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 가이드라인·중장기 마스터플랜도 마련해야"

"4대강살리기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환경보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환경보전 가이드라인 설정과 그 원칙의 준수 ,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 전문가들의 의사결정 등 다방면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 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_강창규

54호 내 고향 축제 '2010 청산도 슬로 걷기 대회'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청산도.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이 돌아가는 회사 생활, 따분하고 지루한 도시 생활을 잠시 잊어보기 위해 어디론가 떠나려던 참에 청산도 느리게 걷기 축제 소식을 접하고 단번에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는 답답한 처지에 청산도는 유일한 탈출구나 다름없을 것 같아요. 청산도에서 느긋하게 걷기를 즐기면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될 때의 그 기분이란….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가 저 멀리 날아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저는 매일 청산도 꿈을 꿀지도 몰라요. 청산도를 다녀오면 제 마음을 뒤흔드는 또 다른 새로운 축제가 소개되겠죠. 기대하겠습니다."_김종섭





알립니다

기능인의 꿈 '명장'을 찾습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능 및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과 '우수지도자'를 선정하고, 기능 장려에 모범이 되는 '기능 장려 우수사업체'도 선정한다. 선정 인원은 명장 35명, 우수지도자 10명, 기능 장려 우수사업체는 5개 업체 이내다.

1986년부터 4백75명이 배출된 명장은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그 분야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다. 산업현장의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20년 이상 종사해 기능과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력이 있으면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우수지도자는 20년 이상 기능인 양성 및 지도 관련 업적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기능 장려 우수사업체는 기능인을 우대하거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와 명장을 다수 배출한 기업이 해당된다. 명장, 우수지도자 및 기능 장려 우수사업체로 선정되면 기능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16개 시도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지사에서 4월 30일까지 접수하며, 오는 8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 신청 서식 및 기타 안내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rdkorea.or.kr, 노동부 자격정책과
Tel **02-6902-8220,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장려팀** Tel **02-3271-9303**



실시간 교통정보, IPTV로 OK!

집에서 IPTV를 이용해 서울시내 교통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통정보 서비스가 3월 31일부터 시작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설공단과 IPTV 3사 간에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 먼저 KT 쿡TV(채널 706번)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PTV 교통정보 서비스는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국로, 남산 1·2·3호 터널 등의 1백44개 CCTV 영상정보와 구간별 소통정보, 사고·공사 및 돌발 상황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와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시청자들은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 출발 전 목적지까지의 교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SK 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나머지 IPTV 업체들은 5월 안에 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과 Tel **02-750-2145**

공감 ♥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연락처와 함께 4월 14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가 로

1. 적의 습격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함선.
4. 뛰어나게 아름다운 눈썹, 사물의 머리와 꼬리, 일의 처음과 끝, 쌀을 거두어들임 등 여러 가지 뜻을 지닌 말은? 'OO일관'
5. 온 정성과 힘. 가장 좋고 훌륭함, 또는 그런 일. "모든 일에는 OO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7. 일의 끝맺음. 흔히 이것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죠.
9.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같이 어떤 국제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두 나라 이상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조직체. 국제기관.

세 로

2. 정원수로 심는 나무의 하나. 옛날 동화(童話)에서 달 속에 있다고 상상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OOOO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3. 군함의 뒤 끝. 상대되는 말은 함수.
6. 잘사는 나라. 다른 나라보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의 발달이 앞선 나라.
7. 논밭 넓이를 재는 단위. 사전에는 "한 OOO는 볍씨 한 말의 모 또는 씨앗을 심을 만한 넓이로, 지방마다 다르나 논은 약 1백50~3백 평, 밭은 약 1백 평 정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지도자.

〈Weekly 공감〉 52호(3월 17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하드웨어 **4** 에이스 **6** 모드 **7** 트레일러 **8** 빅뱅
세로 2 드라이 **3** 키워드 **4** 에어로빅 **5** 스마트 **6** 모바일

〈Weekly 공감〉 52호 '공감퍼즐' 당첨자
김종엽 ·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김주영 ·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김현주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2동
윤혜연 ·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리
임혜정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이 코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만드는 지면입니다. 국민들이 호소한 고충이 실사(實査)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을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국민 고충 접수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 고충민원 및 행정심판 국번 없이 1588-1517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고충 해결사



학교 부지를 복지·체육시설로

사안의 경중을 떠나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민원들이 있다. A택지개발지구 신규 아파트단지에 사는 약 4천 가구가 집단으로 제출한 민원이 그랬다.

문제의 발단은 당초 택지지구 내에 신설하려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예정보다 1개씩 덜 지어진 데 있었다. 그 바람에 2만6천여 제곱미터의 학교 부지가 수년 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방치돼 비가 올 때는 흙탕물이 범람하고, 밤이 되면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변하는 등 많은 후유증이 나타났다. 입주자들은 2005년 7월부터 이에 대한 민원을 관련 기관에 제기했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자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학교 부지에 아파트를 신설해주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현지조사 결과 저출산 등 교육환경 변화와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새로운 학교 설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선 이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납득시킨 후 수 차례의 현지조사를 더 벌인 끝에 학교 부지에 '복지 및 체육시설'을 건립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드는 막대한 부지 매입비는 부지 소유자이자 관리 책임자인 B공사가 택지지구에 기부하기로 약속한 체육공원조성금과 상계해 마련키로 했다.

막판에 이러한 상계 처리를 반대하던 인근 구 아파트단지 주민들도 새 아파트단지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뒤 마음을 바꿨다. 나아가 신·구 아파트 주민들은 단합대회를 열어 친목을 도모하는 한편 권익위원장이 주재하는 조정회의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국민권익위가 공무원계의 '新3D(Dynamic, Dramatic, Dreamful)' 업종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공감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오주형 대전 서구 갈마동

1. '한국 재정상태 OECD 국가 중 4위'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세계 경제불황에 따른 국내 경기위축으로 우리 정부도 경기부양책으로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부정적인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도 혹시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다시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재정수지가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양호한 상태라니 다행입니다. 그만큼 미래가 밝다는 청신호이니 국민과 정부가 더 열심히 뛰어 세계 제일의 재정 강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2. 우리의 젖줄인 4대강은 5천 년 역사를 함께해온 삶의 일부입니다. 또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처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커다란 혜택을 베풀어주는 것도 강입니다. 이러한 강을 재정비하는 4대강살리기 사업이 홍수 피해를 막고, 물 부족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생명력 넘치는 젖줄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니 기대가 됩니다. 미래를 짊어질 후손들에게 이러한 친환경적인 유산을 물려준다면 아마도 지혜로운 선조로 기억될 것입니다.
3.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의 국내외 취업 성공 사례와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기사를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성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1. '안중근 의사 사형집행 명령 원본 찾았다' 기사를 잘 봤습니다. 안 의사의 서거 1백년이 됐는데도 아직 그의 유해를 고국 땅에 편안히 모시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6·25전쟁으로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비무장지대(DMZ)에 생명과 평화의 윤기가 넘치는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해 환경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2. 4대강살리기가 죽어가는 환경을 살리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는 사업이라면, 더 많은 노력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남겨줘도 좋을 4대강이 되도록 말입니다.
3.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며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숨은 일꾼들을 찾아내 널리 알려주세요.

독 자 의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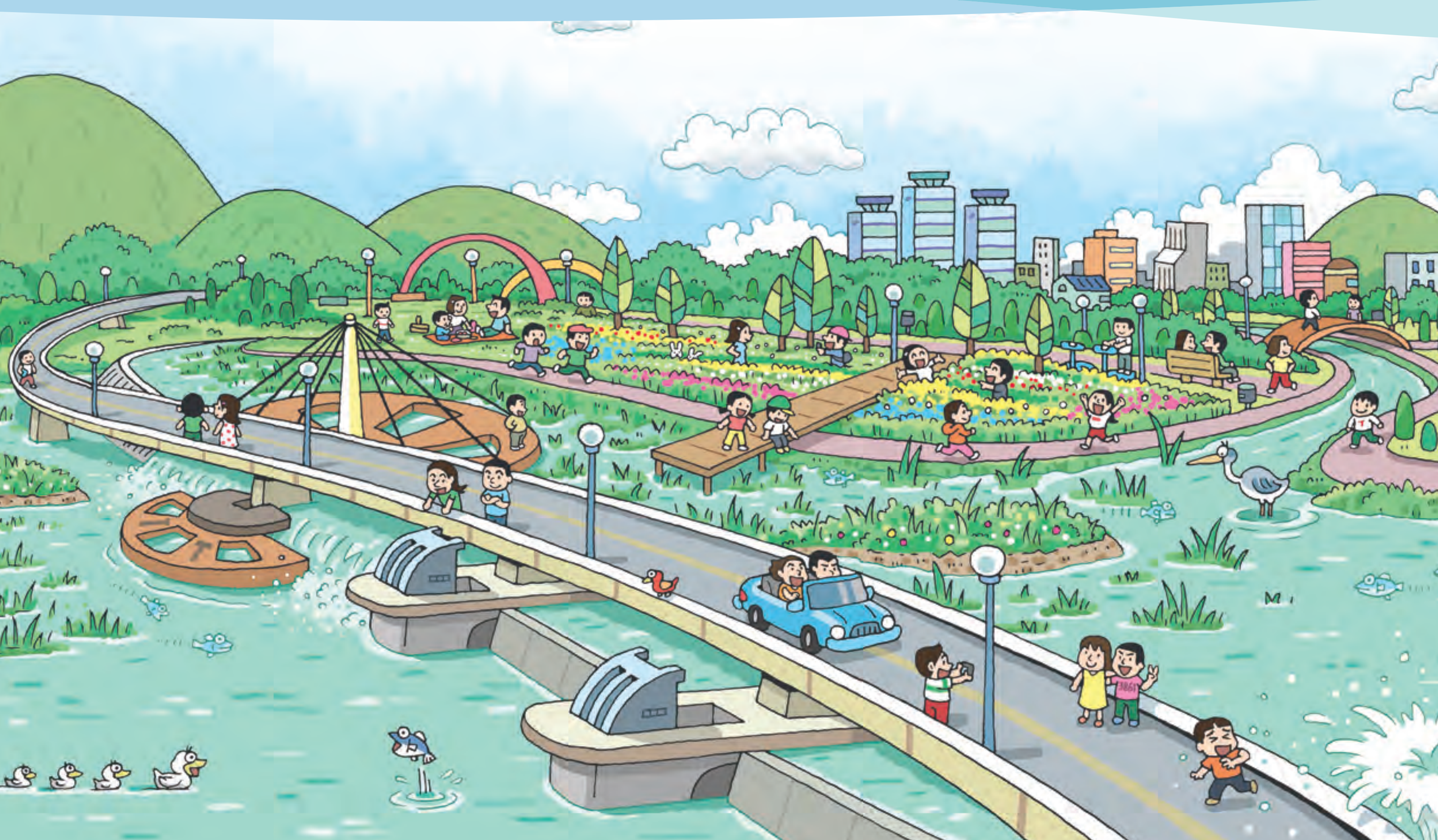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4월 7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에서 다룬 '바다 영웅들의 위국헌신'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water

맑고 깨끗한 물에서 순수한 생각과 정직한 삶을 배웁니다.
K-water는 힘차게 흐르는 물처럼 열정을 다해,
자연과 인간이 함께 웃는 행복한 세상을 창조해 내겠습니다.





이 대통령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방안 강구"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에서 사용할 모든 사회교과서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표시하는 등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다. 이에 대해 우리 국회는 즉각 검정승인을 취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

국회는 4월 2일 본회의를 열어 일본의 초등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사태와 관련, '일본의 사회교과서 독도 영토표기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종걸)가 의결한 결의안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이 일본에 있음을 사회교과서에 기술 또는 표기한 행위는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엄중히 규탄하며 검정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결의안은 이어서 "(일본 초등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표기는) 동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려는 퇴행적 발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검정승인 취소를 위한 아시아 각국 및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했다.

일본의 역사왜곡 행위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국회 결의안은 "(역사왜곡은) 과거의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역사를 오만하게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한일 양국의 미래세대 간 우호관계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일체의 역사 왜곡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국회, 日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의결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발단은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려는 의도가 담긴 내용을 내년부터 초등학교의 모든 사회교과서에 확대해 싣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도서 검정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에 점이나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

과서 5종을 합격 통지했다.

올해까지 사용된 교과서 5종 가운데엔 3종에만 이런 기술이나 지도가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 검정 결과로 내년부터는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에 엄중 항의하는 우리 국회의 결의안 의결을 전후해 정부와 여야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와 가진 정례 조찬회동에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정 대표의 건의에 "적극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정미경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와 당정회의에서 "이제야말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 조치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로서는 그동안 독도 접안시설과 헬기장·경비행장의 확충, 민간인 거주 확대, 독도에 대한 방문과 여행 확대, 군 주둔 등의 방안들이 주장돼왔다"고 말했다.

독도 관할 경북道 즉각 항의 성명서 발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4월 2일 한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모두 열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은 한일 갈등을 다음 세대까지 고조시키고 일본의 침략적 자세가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4월 1일 정운찬 국무총리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 정 총리는 이날 '일본 초등교과서 검정결과 분석 및 대응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며, 어떠한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주권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독도를 관할하는 경북도도 즉각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 명의의 성명서는 '일본 정부가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데 이어 2011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토록 검정 통과시킨 사태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유감의 뜻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해당 교과서 합격 통지가 있었던 3월 30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으며, 당시 시게이에 대사는 "일본 정부로서는 독도 문제가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

글 · 최은숙 기자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명기한 것과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오른쪽)은 3월 30일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깊은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

일본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 관련 일지

1996.2.1	문부성 검정 중고교 지도 5종,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
2006.3.29	문부과학성, 고교 교과서 제작 출판사에 '독도는 일본 땅'으로 명기할 것을 요구
2008.3	日 정부, 신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수록할 계획이었으나 이명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일관계 개선 의지를 감안해 싣지 않고, 지도요령 보완하는 해설서에 담기로 함
2008.5.18	日 언론,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방침 보도
2008.7.14	문부과학성, 중등 사회교과서 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 공식 발표
2009.12.25	문부과학성, 고교 지리·역사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입장 반영. 다만 '독도'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고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심화학습을 하도록 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중학교 해설서에 기초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함
2010.3.30	문부과학성, 교과서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에서 '시마네현에 속해 있는 다케시마가 한국 정부에 의해 불법 점거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상에 점 또는 경계선으로 독도가 일본 영해에 포함된 섬인 것처럼 묘사한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5종 합격 통지

실효적 지배(實效的 支配)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 실효적 지배(effective control)란 어떤 국가가 그 영토에 대한 통치권 즉 입법, 사법, 행정적인 국가권능을 '평화적이고 지속적으로 온전하게(실질적으로 충분히)' 지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주장이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경북도는 3월 30일에 낸 일본 초등교과서 관련 성명서에서 '독도영토관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일본은 독도 영토침탈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2008년 확정한 독도영토관리사업 가운데 예산을 이미 확보해 추진할 예정이던 영유권 확보의 핵심인 독도방파제를 비롯해 현장관리사무소, 해양과학기지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처음 맞은 새해인 1920년 1월 1일 임정 요인 58명이 중국 상하이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두 번째 줄 맨 왼쪽 의자에 앉은 이가 당시 내무부 경무국장이던 백범 김구 선생이다. 그 줄 왼쪽 아홉 번째부터 이동녕, 이동휘, 이시영, 안창호 선생의 모습이 보인다.

4월 1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1주년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고난의 발걸음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처음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5년 광복 전까지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줄기차게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퀴즈를 풀어보자.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②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몇 주년이 되는 해인가? ③ 3·1운동 이후 일본 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에 설립했으며, 8·15광복까지 중국 각지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줄기차게 투쟁한 곳은?

정답을 다 맞혔다면 우리 역사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역사는 그 민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가 흔들리면 쓰러지거나 말라죽게 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다. 20세기 초 열강의 식민 지배 아래 있던 많은 민족이 독립운동을 벌였으나 임시정부를 세우고 27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독립운동을 전개한 민족은 오직 우리뿐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됐다. 3·1운동은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세계만방에 천명했다. 다음 과제는 당연히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상하이에 있는 프랑스 조계지(행정자치권이나 치외법권이 보장된 외국인 거주 지역)에 처음 마련됐다. 프랑스 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함부로 탄압할 수 없고, 상하이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공사관이 자리해 우리나라의 독립 문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4월 13일 전국 각지·상하이 등서 기념식 열려

그러나 동포들이 사는 지역과 교통·통신 장벽이 있었고 중국, 소련, 미국 등의 방해 또는 비협조로 독립운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의 의열투쟁에 대한 일본의 대대적 탄압과 중일전쟁으로 인해 상하이에서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았다. 비밀연락망을 만들어 전국의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이끌었고, 외교활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했다.



동아DB



동아DB

1938년 11월부터 1939년 5월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중국 류저우의 항일투쟁활동 진열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이 정식으로 승인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또 인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한편 〈독립신문〉을 발행해 독립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알려나갔다.

특히 광복군을 결성해 1941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것은 전 세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국의 일원임을 선포한 것이었다. 광복군은 연합군으로 참전해 영국군과 미얀마, 인도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다.

빼앗긴 땅을 우리 손으로 되찾기 위해 국내 진입작전을 세웠으나 안타깝게도 작전일인 1945년 8월 20일보다 일본이 먼저 항복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자주독립의 의지를 세계만방에 떨치고 항일투쟁의 구심점이 됐다. 그뿐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법통 위에 서 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후 우리 겨레가 세운 국가는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었다. 독립운동을 통해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국가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보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다스린다'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 등의 내용이 나온다.

임시정부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불가피하게 우리 영토 밖에서 임시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으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정부로, 입법부인 임시의정원은 국회가 된다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1948년 대한민국 제헌헌법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것이 명시됐으며, 오늘날 헌법 전문에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즉 대한민국은 1919년에 세워져 1948년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후 우리 겨레가 세운 국가는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었다. 독립운동을 통해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국가를 세우고자 한 것이다."

4월 13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 백범김구기념관과 전국의 광복회 지부에서는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뜻을 되새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상하이에서도 중국지역 독립유공자 후손과 교민들이 모여 기념식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참배도 이뤄진다.

기념식 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희생선열 합동추모제전과 임시정부 요인 유족 위문 등의 행사가 열린다. 또 독립유공자·유족 및 동반가족 1인에게는 4월 13일 국립중앙과학관, 서울과학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이 무료 개방되고 철도, 전철·지하철, 시내버스 무임승차가 실시된다. G

글 · 이혜련 기자

어제는 주부맘
오늘은 워킹맘

여성이여!
다시 태어나라

당신의 잠재된 능력을 다시 발휘해보세요.
미루어 두었던 꿈을 다시 이루어보세요.
직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당신의 내일!
이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만나보세요

상담에서 교육, 취업알선, 사후관리까지 취업을 위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취업 도우미입니다.

직업상담
- 1:1 맞춤형 취업상담 ● 취업정보 제공
-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

직업교육
- 무료 직업 교육 ● 주부 인턴제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특화교육

취업알선
- 개인별 맞춤형 취업 알선
- 구인구직 정보 DB 관리

사후관리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서비스
-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544-1199
대표전화
일을 구해 드립니다

46인 대한의 장병들이여 그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봅니다

온 국민이 백령도 앞 깊고 푸른 바다를 향해 기원한다, 마흔여섯 장병의 귀환을.
3월 26일 밤 침몰한 천안함에 탑승한 이들은 우리의 아들, 형제, 가족이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대원들은 시계(視界) 제로의 바다로 뛰어들었다.
'영원한 UDT' 한주호 준위. 탁류와 냉기에 맞서던 그는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아비와 같이 우리 곁을 떠났다.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장병들이 대한의 아들이며, 이들에겐 또 다른 소명이 기다리는 내일이 있다는 사실을.



연합

동아DB



고(故) 한주호 해군 준위의 빈소에는 그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살신성인을 기리는 장병들과 시민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한줄기 등불같은 희생정신을 기립니다

시민들·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조문행렬 줄 이어

백령도 서남방 해역에 침몰한 1천2백 톤급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중 순직한 '해군특수전여단의 전설' 고 한주호 준위를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군인들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이어졌다.

'참군인' 고 한주호 준위(53·특전22차)의 수의는 검정색 해군 정복이었다. 비가 서글프게 내리던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1층 장례식장 안치실에서 고인의 입관식이 진행됐다. 1시간 가까이 진행된 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평소 절친했던 지인 등 3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준위의 부인과 딸은 오열과 실신을 반복했고, 아들 한상기(25·육군1사단 신병교육대 소대장) 중위는 복받쳐 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가족들을 감싸안아 진정시켰다. 고인이 지켜온 이 나라, 대한민국의 태극기로 나무 관을 감싸는 것으로 입관을 마쳤다.

백령도 서남방 해역에 침몰한 1천2백 톤급 초계함 천안함 실종자 탐색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중 순직한 '해군특수전여단(UDT/SEAL)의 전설' 한주호 준위를 애도하는 추모 물결이 전군으로 이어졌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이후 수천 명의 조문객이 다녀갔다. 특히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새벽부터 길을 나선 전후방 국군장병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소속도 계급도 다르지만 참군인의 표상인 한 준위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으려는 듯, 힘이 들어간 두 눈으로 고인의 영정을 마주했다.

육군 55사단 산성부대 전투지원중대 주영구(21) 이병은 "자기희생이 따를 줄 알면서도 남을 구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한 한 준위님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군인의 입장에서 자랑스럽고 그분의 뜻을 계승하는 것이 저의 몫이라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고인 입관식… 사람도 울고 하늘도 울었다

청해부대 4진 파병을 앞둔 해군특수전여단 임경택 하사는 "업무적으로 또는 인간적으로 귀감이 되신 선배님을 떠나보내 모든 후배가 애통해한다"고 말했다. 7기동전단 조용재 주임원사는 "옆에서 지켜본 한 준위는 최고의 군인으로, 한시도 부모님을 잊지 않는 효자"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은 3월 31일 고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고인의 아들 한상기 중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힘내자"고 위로했다. 해군의 한 준위 추모는 진해기지사령부 실내체육관과 부산기지전대 실내체육관에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전 부대로 이어졌다.

한민구 육군참모총장도 3월 31일 밤 한 준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한 총장은 고인의 아들 한 중위를 만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동료를 구하다 희생되신 아버지의 참군인정신은 육군 장병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잘 이겨내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국방일보

해군특수전여단 장병들이 4월 1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 고 한주호 해군 준위의 빈소를 찾아 선배 전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것을 다짐했다.

한민구 총장의 조문에 이어 육군은 수도권 및 재경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는 장성급 지휘관과 간부들로 구성된 1천5백여 명 규모의 조문단을 편성해 조문했다. 또 육군 홈페이지에도 육군 장병의 마음을 담은 추도 글과 함께 '사이버 분향소'를 설치해 해군 장병,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했다.

이계훈 공군참모총장도 4월 1일 저녁 한 준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위국헌신의 표상인 한 준위의 뜻을 받들어 조국수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 준위의 아들 한 중위가 입관식에 참석한 동안 장례식장을 찾은 육군1사단장 신현돈 소장은 "전역 후 2학기부터 교단에 설 예정인 한 중위는 훌륭한 아버지의 군인정신을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주기 바란다"며 지휘관으로서의 당부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백선엽 예비역 대장과 해군 역대 참모총장들도 빈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5대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성호 예비역 중장은 "한 준위는 군인본분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시민들도 故 한주호 준위 빈소 조문

일반인들의 발길도 줄을 이었다. 등산복 차림으로 빈소를 찾은 김무정(72·분당) 씨는 "친구들과 가까운 산으로 산책을 나섰다가 (등산복 차림이)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고인을 뵙고 인사를 올리기 위해 찾아왔다"며 아들뻘인 고인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다.

한 준위에 대한 추모 물결은 사이버공간에서도 퍼져나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개설된 '천안함 구조대원의 순직을 추모합니다'에는 4월 2일까지 5천3백여 명의 네티즌이 참여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특히 한 준위와 30여 년 동안 전우애를 나누며 동고동락했던 동료, 후배들의 추모 댓글이 이어졌다.

'럼텀터거'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아직도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면서 "제가 알고 있던 그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좋은 곳에 가셔서 편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썼다. '난다애인'은 "해군해난구조대(SSU)를 제대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에 무한한 자랑이다. 사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SSU·UDT 특수요원들이 자랑스럽다"면서 "투철한 군인정신, 살신성인을 보여주신 한주호 준위님 부디 영면하시라"며 명복을 빌었다.

군인 가족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혁이사랑'은 "남편이 UDT일 때 교관이셨는데 정말 멋지고 책임감 강한 분이셨다"고 회고했다. 아버지가 해군 예비역이라는 '펭귄'은 "꼭 울 아빠 같아서 맘이 너무 아프다. 한 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면서 "당신은 멋진 군인이며 멋진 아버지"라고 애도했다.

시민들도 사이버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자탄풍'은 "당신은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다. 참군인이다. 당신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또 'kk6470'은 "너무나 안타깝고 헌신적인 한 준위님의 군생활 너무나 존경스럽다"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은 피해가려고만 하는 우리 자신이 부끄럽다"고 자책했다. '천상여인'은 "님과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면서 "사명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심에 많은 대한의 새싹들이 보고 배울 것"이라고 적었다.

회원 수가 5천6백명이 넘는 해군특수전여단 카페에 올라온 추모 글에도 선배를 잃은 슬픔이 오롯이 담겨 있다. 이 카페 메인 창에는 '고 한주호 선배님을 기리며…' 라는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누구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강직하고 멋진 UDT로 평생을 국가와 민족에 헌신하신 그 충의(忠義), 후배들이 영원토록 지키고 발전시켜나가겠다.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이신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글로 고인을 위로했다.

한 준위의 영결식은 4월 3일 오전 10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해군장(葬)으로 엄수됐으며,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G

글 · 송현숙, 김용호, 김가영(국방일보 기자)

이 대통령 백령도 방문 이어 빈소 찾아 유족 위로

“한 준위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

천안함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에 대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4월 2일 오전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한 준위의 빈소를 찾아 헌화와 분향, 묵념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인의 부인 김말순(56) 씨와 육군 중위인 아들 상기(25) 씨, 딸 슬기(19) 양에게 “우리 국민들이 한 준위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 조문록에는 “한주호 준위, 그토록 사랑한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이명박”이라는 글을 남겼다.

조문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한 준위는 통상적 활동 중에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전투 상황에 준하는 만큼 품격도 높이는 등 예우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무공훈장 수여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3월 30일 천안함 침몰사건 현장인 백령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용 헬기 편으로 낮 12시쯤 독도함에 내렸다. 이 대통령은 독도함에서 현황을 보고받은 뒤 고무보트를 타고 2.3킬로미터 떨어진 광양함으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광양함에서 잠수사들의 구조 상황을 직접 챙겼으며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선미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장병 46명을 구조하는 것”이라며 전력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가가 존립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해군 장병들과 가족들은 모두가 애국한 병사이고, 애국한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한 준위에 무공훈장 수여 검토” 지시

백령도는 청와대에서 헬기로 1시간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지만 북한의 월례도에서 11.7킬로미터, 장산곶에서 13.1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거의 모든 행동이 북한에 관측될 수 있고 위협에 노출된 지역이다.

특히 장산곶 등에 지대함 유도탄과 해안포가 집중 배치돼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백령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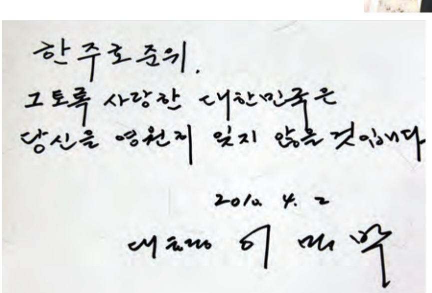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이번 방문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고를 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실종된 병사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 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위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구조함과 구조대를 보내줘 고맙다”면서 “3월 30일 백령도에서 미국 구조대원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답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일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 한주호 해군 준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빈소 방명록에 “그토록 사랑한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누리꾼의 생환 기원詩’ 국민들 심금 울려

“작전지역에 남아 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천안함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며 쓴 장문의 시가 인터넷에 퍼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이 시는 3월 29일 누리꾼 김덕규 씨가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는 제목으로 해군 공식 홈페이지(navy.mil.kr)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772’는 천안함의 고유 식별번호다. 김 씨는 3월 26일 밤 실종된 천안함 승조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그들의 생환을 간절히 바랐다. 명령체로 쓰인 이 시에서 김 씨는 “온 힘을 다하며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며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라고 썼다. 또한 마지막 부분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 주소서”라는 기도로 맺어 모든 이들의 염원을 담았다.

천안함 내부와 인력 배치를 자세히 적은 시의 내용으로 볼 때 김 씨는 해군 전우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시를 본 누리꾼들은 “해군 실종자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며 각종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으로 전하고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772함 수병은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의 어두움도
서해의 그 어떤 급류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지역에 남아 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가스터빈실 서승원 하사 대답하라
디젤엔진실 장진선 하사 응답하라.

그대 임무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 밤이 다가기 전에 귀대하라.

772함 나와라
유도조정실 안경환 중사 나오라
보수공작실 박경수 중사 대답하라
후타실 이용상 병장 응답하라.

거친 물살 헤치고 바다 위로 부상(浮上)하라
온 힘을 다하며 우리 곁으로 돌아오라.

772함 나와라
기관조정실 장철희 이병 대답하라
사병식당 이창기 원사 응답하라.

우리가 내려간다
SSU팀이 내려갈 때까지 버티고 견뎌라.

772함 수병은 응답하라
호명하는 수병은 즉시 대답하기 바란다.

남기훈 상사, 신선준 중사, 김종헌 중사,
박보람 하사, 이상민 병장, 김선명 상병,
강태민 일병, 심영빈 하사, 조정규 하사,
정태준 이병, 박정훈 상병, 임재엽 하사,
조지훈 일병, 김동진 하사, 정종율 중사,
김태석 중사 최한권 상사, 박성균 하사,
서대호 하사, 방일민 하사, 박석원 중사,
이상민 병장, 차균석 하사, 정범구 상병,
이상준 하사, 강현구 병장, 이상희 병장,
이재민 병장, 안동엽 상병, 나현민 일병,
조진영 하사, 문영욱 하사, 손수민 하사,
김선호 일병, 민평기 중사, 강준 중사,
최정환 중사, 김경수 중사, 문규석 중사.

호명된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전선의 초계는 이제 전우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살아서 귀환하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부여한 마지막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보우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아직도 작전지역에 남아 있는
우리 772함 수병을 구원하소서.

우리 마흔여섯 명의 대한의 아들들을
차가운 해저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온 국민이 기다리는 따뜻한 집으로 생환시켜주소서
부디 그렇게 해주소서.



지난해 청해부대 1진으로 소말리아 해역에 파병된 한주호 준위(오른쪽)가 동료 대원과 함께 정박한 함정의 선저 확인에 나서고 있다.

UDT가 그였고… 그가 UDT였다

작전지원대 출입문엔 '불가능은 없다' 기치
"국가 위해선 희생" 당당히 말하던 참군인

해군특수전여단의 기치는 '불가능은 없다'다. 부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작전지원대 출입문 앞에 서면 같은 문구를 또 볼 수 있다. 사무실 배치도에 고(故) 한주호 준위의 사진이 맨 위에 붙어 있고 계급, 성명 아래 바로 그의 좌우명처럼 '불가능은 없다'가 쓰여 있다. 'UDT(수중폭파대)가 그였고, 그가 UDT'임을 말해준다.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은 의지만으로,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실현되지 않는다. '불가능은 없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다시 실천으로 옮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공공연히 말해온 고(故) 한 준위가 그런 사람, 그런 군인이었다. 한 준위의 이런 면모는 군 재직 동안 부대의 임무 완수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를 되짚어보면 잘 알 수 있다.

부대원 절반이 그의 제자… 각종 교범도 그의 손 거쳐

그는 역량 있는 후배 전투원을 양성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한 준위는 35년 군 생활 중 약 20년을 교육훈련 교관으로 지냈다. 교육훈련대 보좌관 또는 훈육관으로 특전 초급반 18개 차수, 중급반 8개 차수, 고급반 4개 차수, SDV과정 5개 차수, 해상대테러과정 5개 차수, 폭발물처리과정 등을 지도했다. UDT/SEAL 대원 절반 이상이 '호랑이 교관'이라는 그의 손을 거쳤다.

부대 차원의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한 준위는 교수안을 직접 제작하기도 했다. 해상대테러특수과정과 특수전기초과정에 대한 교수안이다. 잠수교범에는 협조연구관으로 참여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범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풍부한 교육 경험은 물론 열정적인 근무 자세, 끊임없는 연구 자세로 부대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았다. 특수 임무와 관련된 작전교범과 임무 수행철 등도 제작해 실제 작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기여를 했으며, 전투 또는 교육훈련 보조 장비도

개발했다. 침투습격용 사다리, 저격수 횡이동 표적기, 탄·뇌관 보호상자 등이 그것. 부대 관계자는 "아이디어라는 게 단지 '반짝' 떠오르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이런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임무에 정통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침투습격용 사다리는 대테러 작전에서 담이나 함정에 오를 때 활용하는 장비로 종래의 습격사다리는 중량과 부피, 그리고 이동성에 단점이 있었다. 한 준위는 이를 4미터, 5미터, 7미터, 10미터용으로 나눠 보완 설계해 어떤 함정에도 안전하고 신속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했다.

표적기 창안해 명중률 대폭 높여

함정 모형 등을 이용한 저격수 횡이동 표적기는 대테러 저격수를 비롯한 특전요원들로 하여금 이동표적 사격훈련을 가능하게 했다. 그 전에는 훈련장 여건상 기동 중인 함정이나 차량, 인원에 대한 사격훈련이 제한돼왔기 때문에 이동사격 훈련을 하기 어려웠다.

표적기는 보행(4킬로미터/시간), 뜀걸음(10킬로미터/시간), 차량(15킬로미터/시간) 등 3단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최초 설치 후 5일간 저격수 3명이 훈련하고 평가사격을 실시한 결과 명중률이 크게 향상돼 부대에서 요구하는 명중 기준을 단숨에 뛰어넘었다. 표적기 제작 단가는 2백50만원에 불과하다. 외부에서 제작할 경우 5천8백30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5천만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폭발물 처리용 탄·폭약 뇌관 보호상자는 2000년 폭발물처리대 중대장으로 근무할 때 기존 상자를 개선했다. 종래의 보호상자는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제작돼 외압에 쉽게 변형되기 쉬웠다. 또 작전 대기 중이거나 이동할 때에는 위험성도 뒤따랐다. 이에 한 준위는 4개의 강철 재질 원통형 뇌관 보호상자를 제작 운용했다. 이후 폭발물 교육훈련은 물론 작전 및 긴급출동 상황에서도 뛰어난 안정성과 내구성으로 대원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교육훈련 안전관리도 만점

부대 관계자는 "한 준위의 경험과 연구는 부대 안전과 직결된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 준위의 노력 덕택에 부대는 각종 교육훈련 때 안전사고가 없기로 정평이 났다. 안전 체크리스트를 누구보다 철저히 이행했고, 후배 교관들에게도 안전교육을 적극 강조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3년 전 부대 안전점검 때에는 단 한 건의 지적 사항이 없었을 정도였다"며 한 준위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한 준위의 한 기록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온다. 그는 타고난 천생(天生)군인이었다. G

글 · 신인호(국방일보 기자)



국방일보

한 준위가 생전 특수전 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침투습격용 사다리.

한주호 준위는 엄홍길 대장의 '영웅'



"산행을 하며 생사의 기로에 설 때마다 선배를 생각했습니다."

3월 31일 저녁 고 한주호 준위의 빈소에 산악인 엄홍길(50)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해군특수전여단 UDT(수중폭파대) 28기 동기들과 함께였다. 엄 씨는 해군에 입대한 지 5개월 만에 UDT에 지원했고 1982년 5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한 준위(당시 하사)와 함께 경남 진해에서 생활했다.

"UDT 훈련은 정말 극한의 상황을 겪게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한 선배는 후배들을 다독이면서 힘을 북돋아줬어요. 유머감각도 뛰어나 분위기를 잘 리드했죠."

엄 대장은 훗날 산행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 혹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한 준위를 비롯한 UDT 동료들을 떠올리며 이겨냈다고 말했다. '산악 영웅' 엄홍길의 영웅은 'UDT의 전설' 한 준위였던 것이다. 침착하게 한 준위와의 추억을 전하던 엄 대장은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 해요. 호수나 수영장이 아니라 바다잖아요. 한 번 잠수할 때마다 '이번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목숨 내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엄 씨는 분명 최선을 다하고 있을 UDT 요원들을 두고 "왜 빨리 들어가지 않느냐"고 재촉하는 이들을 보면 앞으로 구조작업을 계속할 UDT 선후배들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물에 뛰어들었다는 한 준위. 엄 대장은 한 준위에 대해 "선배는 그런 분"이라고 말했다.

"선배는 분명 '내 몸 하나 바쳐 전우를 구해내겠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글 · 정아영(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해는 지고 조류 거세지는데… 선발대는 탈진

누군가는 잠수해야 했다

한주호 준위는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3월 28일 현장으로 자원해서 출동했다. 후배들에게 '늙은 형아'로 불리며 해군 복무생활 30여 년간 누구보다 솔선수범했던 그는 이번에도 후배 전우들을 생각하면 1분1초가 급박하다며 거센 바다에 먼저 뛰어들었다.

한주호 준위는 왜 잠수할 수밖에 없었나

해군특수전여단의 살아 있는 전설, 청해부대 1진으로 해적 제압, 올 9월 전역 전 직업보도교육 예정.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탐색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는 현장으로 굳이 달려갈 필요가 없었다. 부대에서도 그에게 출동을 '명령'하지도, '권유'하지도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왜 잠수에 나서야 했을까.

3월 28일 오후 6시 한주호 준위는 해군특수전여단의 현장 지휘관을 보좌하고 대원들에게 기술적인 조언을 하기 위해 천안함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 먼저 도착한 부대 관계관도 이번 작전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할 전문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한 준위의 도움이 절실함을 느꼈다.

임시 부표 파도에 휩쓸리면 끝… "내가 들어간다"

잠수요원이 아닌 참모 역으로 현장을 둘러본 한 준위는 1분 1초가 급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구조작전에 자원해 뛰어들었다. 누구보다 바다의 무서움을 잘 아는 고인이 수심 수십 미터 아래 갇혀 있을 후배 전우들을 생각하면 해상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 백령도에서 함께 구조작전을 벌였던 교육훈련대장 김근한(사후84기·특전39차) 소령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동아DB

한주호 준위(앞쪽 잠수복 입은 이)가 3월 29일 성인봉함에서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3월 28일 오전 6시부터 1진 선발 대원들은 전날에 이어 사고 해역 일대에서 구조작전에 착수했다. 오후 2시쯤 대원들은 핸드소나(소리의 반사로 물 속 내부의 이물질을 찾아내는 장비)와 수심측정기를 통해 최초 소실지역에서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좇았다. 핸드소나에서 철소리가 들리는 순간, 수심 30미터로 유지되던 것이 갑자기 20여 미터로 낮아졌다. 함체로 추측되는 물체를 발견한 것.

당시 조류가 강해 임시 부표를 설치하고 핸드GPS로 좌표를 찍었다. 이때가 해질 무렵인 오후 6시쯤. 무려 12시간의 수색작전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런데 어렵게 찾아낸 선체가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이동한다면 구조작업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결국 누군가 이런 악조건을 뚫고 잠수해 함체에 부표를 연결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 준위와 권영대(해사42기·특전38차) 중령 등 16명의 대원은 고무보트 4척에 나눠 타고 오후 6시 30분쯤 부표 재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밤이 되면서 수온은 더욱 떨어지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16명 중 누군가는 잠수를 해야 했다. 2백 파운드짜리 부표 2개, 50미터 길이의 로프가 실린 보트가 물결을 타고 일렁이기만 하던 바로 그때, 한 준위가 나섰다.

"내가 들어간다."

한 준위가 나서자 권 중령부터 만류했다. 권 중령 역시 한 준위의 제자. 하지만 누구도 그의 완강한 의지는 꺾지 못했다. 거센 조류와 얼음보다 더 차가운 수온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 앞에서 한 준위는 의연한 자세로 잠수복을 입었다. 그리고 임시 부표를 따라 바닷속으로 내려갔다. 오후 7시 30분, 함수 부분에 부표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주변의 고속정 등에 탑승한 대원들은 갑판에 몰려나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극한 상황을 이겨내고 물 위로 떠오른 한 준위의 얼굴에는 힘겨움보다 제자들을 격려하는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위, 하늘에는 보름을 앞둔 둥근 달이 훤히 떠올라 있었다.

함수 부분 수중작업 중 실신… 마지막 체력 다해

한 준위는 30일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가 천안함 함수 부분에서 수중작업을 하다 오후 3시 20분께 실신해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3천 톤급 미군 구조함인 살보함으로 후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5시께 순직했다. 이날 한 준위는 작전 현장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함수 부분의 함장실 진입을 위한 인도용 하잠로프를 성공적으로 설치한 팀의 일원이었다.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던 한 준위가 험난한 바다에서 마지막 체력을 소진한 것이다. 3월 31일 고(故) 한주호 준위의 빈소를 찾은 전 해군특수전여단 대원 김규대(27·장애인 육상 국가대표) 씨는 "구보든 수영이든 젊은 장병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어떤 훈련에서나 항상 앞에서 대원들을 이끌었다"며 안타까워했다. G

글 · 김용호(국방일보 기자)

"고인은 해군특수전여단의 영원한 스승"

UDT/SEAL 대원이 말하는 한주호 준위



동아DB

한주호 준위는 세계 최강의 해군특수전여단 대원을 양성한다는 신념 아래 특전 31차부터 51차까지 해군특수전여단 교육훈련대 교관으로 열성을 다했다. 35년에 달하는 군 생활 중 20여 년을 교관으로 활약하며 특전요원 2천여 명을 양성하는 데 힘쓴 것. 1955년 수중폭파대(UDT)로 창설된 이래 배출 요원 4천여 명 가운데 둘 중 한 사람이 한 준위의 제자인 셈이다.

교육훈련대장 김근한(사후84기) 소령은 "나도 역시 고인의 제자였다"며 "교육생과 교관으로 처음 만났던 때가 눈에 선하다"고 회상했다. 교관 시절 동료 교관이었던 최호석 상사는 "한 준위님은 20년을 채우겠다는 의지로 교관 역할에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며 "이제 20년을 채우기까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라며 애써 눈물을 삼켰다.

오랜 교관 생활에도 불구하고 한 준위는 대원들 사이에서 '늙은 형아'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격의 없이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병들에게 별명을 붙여주며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베푸는 존재였다는 것이 그와 같이 생활했던 장병들의 기억이다.

"이런 일은 노땅 몫이야" 힘든 일 솔선수범

한 준위는 2009년 소말리아 해역의 선박보호 임무를 위해 청해부대 1진에 지원해 선박 검문검색의 임무를 마치고 지난해 9월 귀국하기도 했다. 당시 1진에서 최고령자였던 한 준위는 7차례에 걸쳐 해적을 퇴치했고, 특히 지난해 8월 해적이 바하마 국적의 노토스 스캔호를 공격했을 때는 직접 해적선에 올라 퇴치작전에 참가했다.

교육훈련대 교관 박현웅(사후101기) 대위는 "한 준위님은 지난해 청해부대 파병 기간 동안 장교들만 생활하는 사관실을 떠나 대원들과 함께 3단 침대가 있는 좁은 격실에서 6개월 동안 생활했다"고 회고했다.

청해부대 파병 기간 내내 문무대왕함의 선저(船底) 검사는 고인의 몫이었다. 위험한 임무라며 다들 만류했지만 작전 수행 후 함정 프로펠러 아래에 들어가 검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고된 작업을 노병은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회피하는 임무를 자원해서 하면서도 한 준위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건 '노땅'의 몫이야."

청해부대 1진의 고속단정(RIB)에 장착된 40밀리미터 유탄자동발사기(M-4) 시험사격 때에도 고인은 최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차갑고 높은 파도에 아랑곳없이 앞장서서 안전시험을 수행했다.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수중 탐색구조작업에 솔선수범한 모습은 평소 군 생활 모습 그대로였던 것.

6개월이 넘는 장기간 동안 좁은 선실 안 망망대해에서 단 한 건의 문제나 갈등 없이 청해부대 총원이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도 한 준위의 솔선수범과 격의 없는 모습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동료 전우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글 · 김병륜(국방일보 기자)

軍 최단시간 내 구조작전 지원

'인양 후 정밀조사'까지 섣부른

정확한 사건 발생 시간은

사건 발생 시간은 3월 26일 오후 9시 20분쯤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 정확한 것은 현재 운용 중인 합동조사단의 집중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할 것이다. 국방부가 처음 발표한 오후 9시 45분은 해군작전사령부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받은 시간이다. 이후 천안함 포술장이 휴대전화로 2함대에 보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2함대가 해군작전사령부에 서면으로 보고한 오후 9시 30분으로 정정했다.

이후 합동조사단을 통해 함장의 진술을 듣고 천안함 포술장이 2함대 상황반장에게 보고한 시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침몰 당시 측정한 지진파 발생시간, 해병대 열상장비(TOD) 녹화시간 등을 고려하면 사건발생 시간은 오후 9시 20분쯤으로 판단된다.

사건 직후 상황과 조치는

천안함 함장은 사고 발생 당시 함장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넘어져 의식을 잃고 약 5분간 갇혀 있었다. 승조원들이 문을 부수고 구조해 갑판에 올라와 보니 함정은 이미 함미 연돌(굴뚝) 뒷부분이 절단돼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함수는 우현(오른쪽 뱃전)



원인추정 말아야


동아DB

90도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고 좌현(왼쪽 뱃전) 함교 뒤 갑판에 승조원 20여 명이 집결해 있었다. 이후 함장은 이들 20여 명이 각 격실을 수색해 생존자 30여 명을 구조하도록 지휘했다.

또 포술장에게 2함대사령부에 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구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했다. 천안함 함장은 "함교에 도착했을 때 승조원 20여 명이 있었으며, 함수가 우현으로 기울어 마스트(돛대)가 물에 닿은 상황에서도 비상등을 이용해 격실을 수색해 생존자를 확인했다"며 "수색 완료 후 58명의 생존자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함장은 오후 9시 50분 무렵까지 생존자 전원을 외부 갑판으

▲3월 26일 침몰한 해군 초계함 '천안함'.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군 수뇌부가 모두 모인 가운데 60여 명으로 구성된 위기관리반을 가동해 만반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3월 29일 오후 인천 옹진군 백령면 천안함 선미 침몰지점 해상 인근에서 해군 SSU요원들이 수색준비를 하고 있다.



동아DB



서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한 천안함의 앞부분(함수)이 3월 27일 오전 뒤집힌 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함수는 이날 낮 12시쯤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옹진군청



연합

침몰한 천안함 승조원들을 구조한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함정 '501함'이 3월 30일 오전 1시쯤 인천 해경부두로 귀항해 접안하고 있다.

로 이동시켰으며, 이후 매우 조직적이고 질서정연한 가운데 모든 조치를 안전하게 수행했다. 이어 오후 10시 40분쯤 구조함정이 도착함에 따라 생존자들에게 이함을 지시했으며, 잔여 인원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오후 11시 10분쯤 마지막으로 함을 이탈했다. 함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장교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승조원과 함께 구조활동을 했으며, 함장이 가장 늦게 함을 이탈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해경 501함장의 증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구조를 도운 해경 501함장은 "맨 마지막으로 천안함 함장을 포함한 12명을 고속단정에 옮겨 태웠다"고 증언해 천안함 함장이 먼저 내렸다는 일부 의혹을 불식시켰다. 이를 볼 때 함수에서 58명이 생존한 것은 천안함 함장과 승조원들의 침착한 대처와 군·경·관의 협조된 작전의 결과라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다.

속초함 76㎜ 함포사격 이유는

천안함 침몰 상황 발생으로 2함대사는 해상 경계태세를 A급으로 격상 발령했다. 이에 따라 경계를 강화하던 속초함은 레이더를 통해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해 사격했다. 군은 표적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분리됐다가 다시 합치는 현상이 2회 반복되고 표적이 사라진 지점도 육지에 해당돼 최종적으로 새떼로 판단했다.

북한 반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은

국방부는 다양한 정보자산을 활용해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특히 침투자산인 잠수함, 잠수정, 반잠수정과 같은 선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건 당일의 움직임 여부도 당연히 파악하고 있다.

당시 사고 인근 지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이나 잠수정 활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잠수함, 잠수정 활동을 포함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민·군 합동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해 밝혀낼 것이며, 이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천안함 항로는 정상적인가

경비함은 상급 부서에서 지정한 구역 내에서 경비를 실시한다. 경비구역을 이탈할 때는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경비구역 내에서는 함장의 판단 하에 임무를 수행한다. 당시 천안함은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천안함이 백령도에 다소 근접해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응해 지형적 이점을 이용하려는 측면이 있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기동 공간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한 것이다. 해당 항로는 함장 부임 이후 10여 회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속초함은 처음에 천안함 남쪽 49킬로미터 지점에서 정상적인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나 천안함 침몰 상황 발생 이후 2함대사의 지시에 따라 북방한계선(NLL) 남단으로 전진 배치했다.



3월 30일 오후 백령도 인근 천안함 함수 발견지점에서 해군 SSU와 UDT로 구성된 심해수색팀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천안함의 정비 부족 의혹

2008년 정기정비 기간 중 선체를 육상에 들어 올려 확인한 결과 선저를 포함해 선체 마모도, 노후도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몰 원인은

충분한 조사 없이 사고 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야기할 소지가 크므로 선체를 인양한 후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방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것이다.

국방부는 3월 31일 침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합참 전력발전본부장을 단장으로 민 · 군 · 관을 아우른 총 82명의 합동조사단을 편성했다. 합동조사단은 전비태세검열실, 정보 · 작전 관계관, 해군 분석관, 기무 · 헌병 관계관, 폭발물 처리반 등 군 관계자 59명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조선소 관계관 등 민 · 관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다.

탐색·구조 전력 제때 도착했나

해군작전사령부는 탐색구조 전력 투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전력 출동과 현장 투입을 지시했다. 해당 전력은 이동속도와 거리를 고려해 최단시간 내에 출동 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있다. 해난구조대는 상황 발생 40분 만인 3월 26일 오후 9시 55분에 비상 소집돼 3시간 동안 출동 준비를 실시했다. 이후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27일 오전 1시에 육로로 출발, 평택까지 이동한 후 헬기를 이용해 같은 날 오후 3시 백령도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시작했다.

구조함 광양함은 3월 26일 오후 10시에 즉각 출항해 총 8백 64킬로미터 거리를 최대속도인 12노트로 운항해 28일 오후 2시 40분에 현장에 도착해 바로 구조작업에 투입됐다. 정비 중이던 평택함도 정비 일정을 하루 앞당겨 조기 출항, 31일 오전 7시에 사고해역에 도착한 후 즉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해함은 부산, 울산, 포항 등 전시 핵심지역 소해와 군수지원, 정비 관련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진해에 집결해 운용 중이다. 옹진함과 양양함 등 소해함도 신속히 출동 준비를 한 후 진해를 출항해 각각 최대속도로 운항, 3월 28일 오후 9시 30분과 29일 오전 0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상륙함 중 성인봉함은 최초 모함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독도함은 헬기 운용요원과 관련 장비를 탑재하고, 항공유 수급 등 출동 준비를 완료한 후 3월 28일 오후 4시에 출항해 이튿날 오후 5시에 사고해역에 도착해 현재 모항 임무를 수행 중이다. 소해함을 왜 평택 등에 전진배치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소해작전 실시, 전비태세 유지, 후속 군수지원, 정비 용이성 등을 고려해 진해기지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2013년 이후 추가전력이 확보되면 각 함대 또는 지정함대에 배속시켜 분산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어선이 함미를 찾은 것은 맞나

작전 초기인 3월 28일 오후까지는 해군 소해함 옹진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다. 진해에서 3월 27일 오전 7시 21분에 출항해 사고해역 현지에는 28일 오후 9시 34분에 도착했다. 그러나 우리 해군은 일분일초라도 빨리 침몰 선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소해함이 도착하기 전부터 고속단정(RIB)에 로프와 추를 연결해 1조 3척 단위로 저인망식 탐색작업을 했다. 동시에 백령도 어선통제소에 어군탐지기를 보유한 어선 지원을 요청, 2척을 지원받아 사고해역에 투입했다.

3월 28일 오후 3시 37분쯤 민간 어선으로부터 수중물체를 포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소해함 옹진함이 백령도에 도착하자마자 수중물체를 포착한 지점을 중심으로 음향탐색을 실시했다. 옹진함이 도착한 지 약 한 시간 후인 오후 10시 31분에

미식별 수중물체를 포착했고, 소나영상을 판독한 결과 길이 32미터에 폭 10미터의 천안함 함미 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최종 식별해냈다. 이 과정에서 어선에 비해 해군 함정의 해저 탐지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작전운용 용도가 다르다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군의 초계함에 탑재되는 음탐기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수평 방향의 탐지 빔 패턴으로 돼 있어 해저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에는 능력이 제한된다. 또 고출력 음향을 사용하므로 반경 50야드(45.72미터) 이내에서 작업 중인 잠수요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비해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군탐지기는 장비특성상 탐지 빔 패턴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돼 해저 목표물을 탐지하는 데 유리하다. 반면 해군 소해함에 탑재된 음탐기는 해저, 수중, 표면에 있는 모든 목표물을 탐지하기 쉽게 설계돼 있다. 이러한 장비 특성을 고려해 소해함이 도착하기 전에는 어선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그 어선들이 초기 작전 수행에 도움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군이 민간의 구조작업 지원을 기피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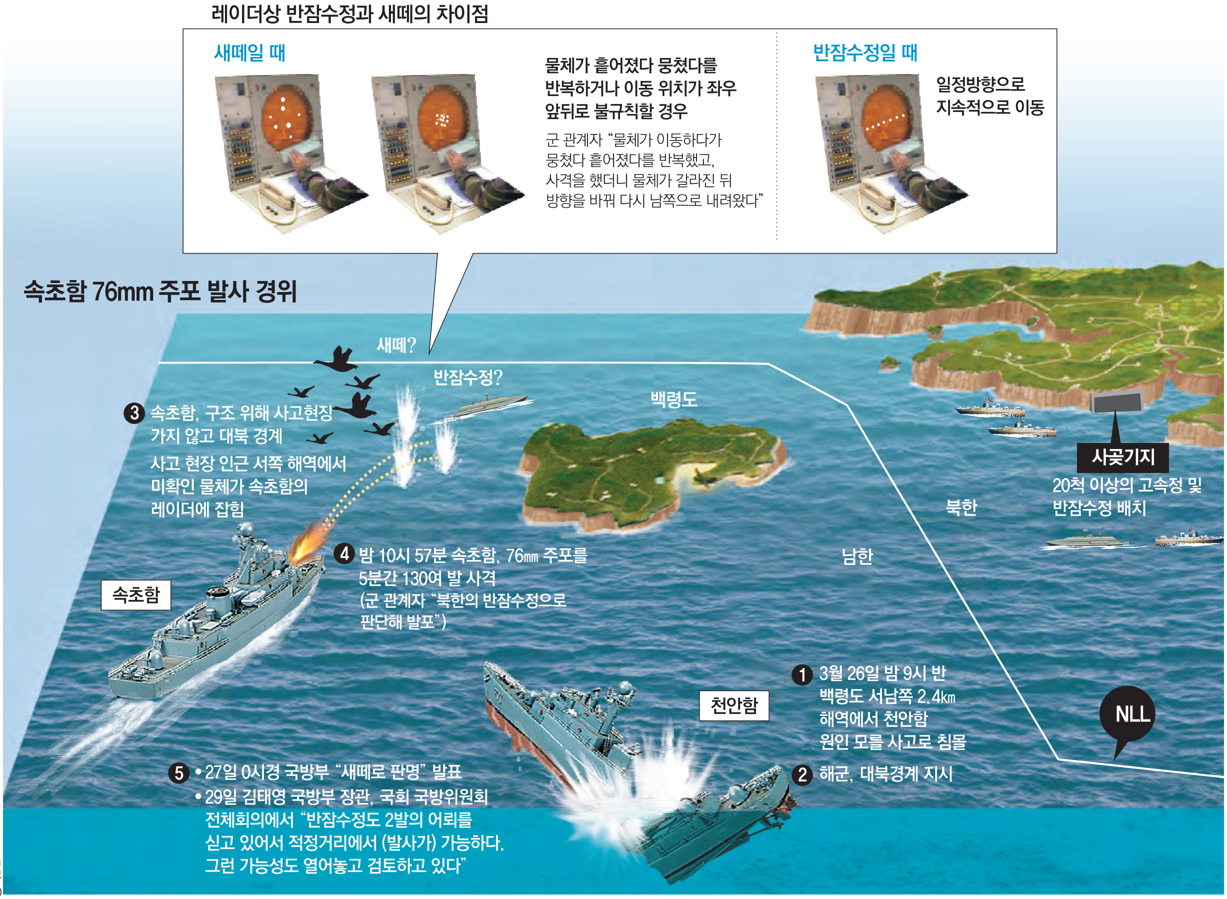
국가적 총력을 다해 진행 중인 구조작업에 민간 참여와 지원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민간의 참여 의지와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린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구조 능력이다. 해저 환경평가 등 일부 민간 전문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도 있으나, 전반적인 구조능력 면에서는 군의 경험과 훈련 정도를 고려해볼 때 군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과거 국가적 재난 시 가장 위험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돼 구조역량을 발휘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군은 해상 크레인과 바지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전문 구조함, 챔버실 등 민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군만의 특화된 구조함정과 장비가 있다. 또한 구조현장에 과다한 인력 및 장비가 밀집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효율적인 작전 진행을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군 조직 활용이 우선 요구된다.

해군의 수영훈련 수준은

수영훈련은 장병들의 수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정 해상사고 발생에 대비해 생존훈련 목적으로 양성교육 및 함정근무 중에 실시하고 있다. 양성교육 기간 중 수영훈련은 기초군사교육단에서 병사는 4주 교육기간 중 2일간(16시간), 부사관은 8주 교육기간 중 4일간(1주) 실시하고 있다. 훈련 내용으로는 구명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생존법, 함정이탈(비상이함) 절차 등을 교육한다.

레이더상 반잠수정과 새떼의 차이점



동아DB

함정근무 기간에는 매년 하계기간 중 1일간 생존 및 수영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사고 등 비상시에 신속하게 함정에서 이탈하기 위한 비상이함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해군 위기대응 매뉴얼 있나

해군은 각급 제대별로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이에 따른 절차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해군 함정은 작전 임무수행 중 적의 유도탄 공격, 화생방 공격, 어뢰·폭뢰공격, 화재 및 선체 손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제대별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운영하고 있다. 해군작전사령부와 함대는 위기조치 예규를 사전에 마련해두고 있으며 함정도 함정훈련지침서를 통해 상황별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놓고 있다.

천안함처럼 우발적인 해상사고 발생 시 현장 지휘관은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선 조치, 후 보고' 하도록 돼 있다. 이번 천안함 사고의 경우, 함장은 비상시에 대비한 절차에 따라 생존자 확인 및 구조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했고, 상급부서에 제반 지원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적시적인 조치를 취했다.

생존자를 입단속하는 것 아닌가

작은 불만도 쉽게 인터넷에 올리는 요즘의 신세대 병사들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입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뭔가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함장은 생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휘관으로서 기본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대신 실종자 가족과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대표성 있는 함장으로 하여금 인터뷰를 하도록 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게 했다.

현재 생존자들은 자신들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상당 기간 치료와 안정이 필요해 수도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이며, 사안이 안정되는 대로 생존자들의 증언도 공개할 예정이다.

실종자 가족 연락은 어떻게

사고 발생 시점이 금요일 야간인 관계로 실종자의 가족 연락처 파악도 다소 지연됐다. 사고 발생 이후 생존자와 실종자의 명단을 확인한 후 다음 날인 3월 27일 오전 7시부터 실종자 가족 46명에게 연락을 취해 오전 11시 10분에 전파가 완료됐다. 몇몇 가족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경우가 적지 않아 전파 소요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됐다. 그중 일부 가족은 주소지와 연락처가 불분명해 실종자의 동기생이나 간부가 주소지를 경찰서에 문의한 후 연락하는 등 실종자 가족에게 전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실종자 가족 지원은 제대로 하나

대기 장소와 숙소, 식사, 안내 지원을 하고 있다. 가족 중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여군과 여군무원으로 구성된 여성가족 지원요원도 3월 30일 오후부터 배치했다. 환자 발생에 대비해 간호장교 등 의료요원과 구급차량도 배치했다. 이 밖에도 세면도구와 온수를 공급하고, 수시로 청소하고, 영내 목욕탕을 운영하는 등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G

글 · 이주형, 김병륜(국방일보 기자)

SSU · UDT 그들은 누구인가

수중 45미터, 섭씨 3도 안팎의 차가운 수온, 1미터도 안 되는 시계. 최악 조건과 사투를 벌이며 천안함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는 해군 SSU와 UDT/SEAL 대원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해군해난구조대(SSU)와 해군특수전여단(UDT)의 정예 대원들이다. '바다의 119'로 불리는 SSU(Ship Salvage Unit)는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전·평시 해난구조작전이 주 임무다. 해상과 수로의 장애물 제거, 선체 인양, 인명 구조 등 다양한 작전을 수행한다.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1일 해군해상공작대로 창설돼 1955년 해난구조대로 변경된 뒤 60년간 해난구조 임무를 수행해왔다. SSU 대원들은 구조가 주 임무이기에 수직 잠수를 주로 한다. '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라는 복무 신조처럼 강한 훈련을 통해 심해잠수 기술을 향상시켜왔다.

대원들은 심해잠수를 위해 포화 잠수 숙달훈련을 반복하는데, 질소가 포함된 특수혼합기체를 체내에 흡수하면서 엄청난 수압마저 견뎌내야 하는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잠수 직후 곧바로 체내 산소 농도 및 압력을 정상으로 되돌리도록 치료하는 '챔버'를 갖춘 구난함과 함께 움직인다.

한 준위가 몸담고 있던 UDT는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특수전여단으로 본래 이름은 UDT/EOD/SEAL(Underwater Demolition Team/Explosive Ordnance Disposal/Sea Air Land)이다. 해상, 육상, 공중 어디서나 전천후 타격 및 수중 폭발물 처리, 해상 대테러 등의 위험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천후 특수부대를 말한다.

어떠한 작전이든 소화해야 하기에 UDT 대원들을 '인간 병기'라 부르기도 한다. 침투가 주 목적이라 수평 잠수 훈련을 주로 받는다. 대원이 되려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24시간 지옥훈련을 기본적으로 통과해야 한다. 지옥훈련 중에는 1백32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은 채 체조와 구보를 하는 것도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침몰한 참수리 357호정 인양 때 폭발물 탐색을 성공리에 펼쳤으며, 1996년과 1998년 강릉 및 속초 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잠수함 내부 수색작전 등에서도 폭발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글 · 유재영 기자


동아DB

초계함… 어뢰… 기뢰…?

낯선 군사용어들 정확하게 알자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언론매체에 일반인들에게 낯선 군사 관련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함정의 종류와 해군이 사용하는 무기에 이르기까지 용어 풀이를 통해 정확한 뜻을 알아보자.



동아DB

초계함은 우리 해역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해군의 주요 전투함으로, 천안함도 초계함 중 하나다.

초계함(哨戒艦 · Patrol)

초계(哨戒)란 우군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를 뜻한다. 초계함은 전방 및 측방해역 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대(對)수상함전, 대(對)잠전을 수행하는 해역함대의 주요 전투함이다. 한국조선공사에서 함정 건조가 시작되어 1982년 8월 1번함이 해군에 인도됐고, 1993년까지 28척이 건조됐다. 초계함은 동해급 4척, 포항급 24척으로 분류되며, 천안함은 동해급보다 화력과 기동성이 높은 포항급 대잠 전투함이다.

소해함(掃海艦 · Sweeper)

평시에는 주요 항만에 대한 탐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전시에는 폐쇄된 항구의 돌파소해, 주요 항만의 개항, 상륙전 시 일선에서 소해임무 수행 및 해상교통로에 대한 소해를 주 임무로 한다. 소해(掃海)란 물리적으로 기뢰를 찾아내 제거 파괴하는 작업을 뜻한다. 감응작용으로 기폭시키는 기계적 장치, 또는 폭발장치를 사용해 기뢰를 탐색 제거하는 기술을 사용한다.

고속단정(高速短艇 · RIB · Rigid Inflatable B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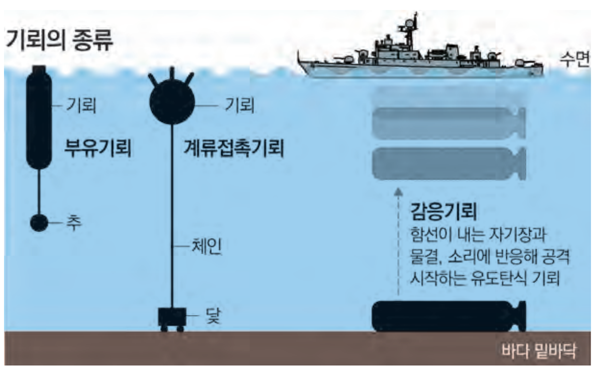
주로 국지적인 도발전에 운용하며 상륙기습작전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해병대, 해군특수전여단(UDT/SEAL), 해경특공대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고속정(高速艇 · PKM · Patrol Killer Medium)

고속정은 최일선에서 조국 영해를 수호하고 있다. 주로 연안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으로, 규모는 4백 톤 이하다. 연평해전에서 본 것처럼 북한 경비정과 불과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거나 직접 충돌로 적 선체에 손상을 입히고, 장착된 함포로 적선을 침몰시킬 수 있다. 그 밖에도 불법어로 감시, 밀입국 감시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음탐기(音探器 · Sonar)

넓은 범위로는 신호탐지, 청음, 통신, 항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수중음향에너지를 이용하는 것 또는 그를 위한 기기를 말하며,



동아DB

좁은 범위로는 수중 목표물의 거리 및 방위를 측정하는 음향탐지기 또는 수중청음기를 말한다. 음탐기도 용도에 따라 작용원리가 다르다.
해군 초계함에 탑재되는 음탐기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도록 수평 방향으로 음파를 내보내 해저에 가라앉은 목표물 탐지에는 능력이 제한된다. 반면 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군탐지기는 탐지 음파가 수직 방향으로 형성돼 해저 목표물 탐지에 유리하다. 해군 소해함에 탑재된 음탐기는 해저, 수중, 표면을 가리지 않고 모든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소해함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해저에 가라앉은 천안함 함미를 발견하는 데 있어 어선이 초계함보다 유리했다.

잠수함(潛水艦 · Submarine)

자체 능력만으로 잠수할 수 있는 3백 톤 이상의 함정으로 독립 작전이 가능하다. 어뢰나 어뢰발사관, 발사용 유도탄로켓을 장착해 무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1천2백 톤급 장보고급 잠수함 9척이 건조돼 있으며, 향후 디젤잠수함 중 가장 최신 설계에 최신 장비를 탑재한 214급 잠수함이 배치될 예정이다.

잠수정(潛水艇 · Midget Submarine)

1백50톤 이하의 소형 잠수함으로, 5명 이내의 인원이 탑승하며 잠항정이라고도 한다. 적국의 항만 내에 은밀히 잠입해 정박 중인 함선을 기습 공격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반잠수정(半潛水艇 · Semi-Submarine Boat)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고 해안에 침투할 수 있는 소형 공작선으로, 잠수 시 수면으로부터 20~30센티미터 노출되며, 노출 부위엔 반(反)레이더 고무커버를 씌워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다. 북한이 대남 공작선(자선)으로 개발한 반잠수정이 있다.

어뢰(魚雷 · Torpedo)

어뢰는 '어형수뢰(魚形水雷)'의 약칭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폭발성 발사체 무기다. 직경, 무게, 파괴력 등에 따라 중(重)어뢰와 경(輕)어뢰로 분류한다. 우리 군의 경우 중어뢰 '백상어', 경어뢰 '청상어' 등 두 종류 모두 국산화돼 있다. '백상어'는 주로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을 대상으로 하며, '청상어'는 중소형 수상함이나 잠수함을 주 목표대상으로 한다. 어뢰는 한번 맞으면 천안함(1천2백 톤)급 선박은 물론 구축함(3천~5천 톤급), 순양함(1만톤)급 선박도 두 동강 나며 격침되지만, 접근 시 스크루 소리 등으로 인해 레이더에 감지될 가능성이 높다.

기뢰(機雷 · M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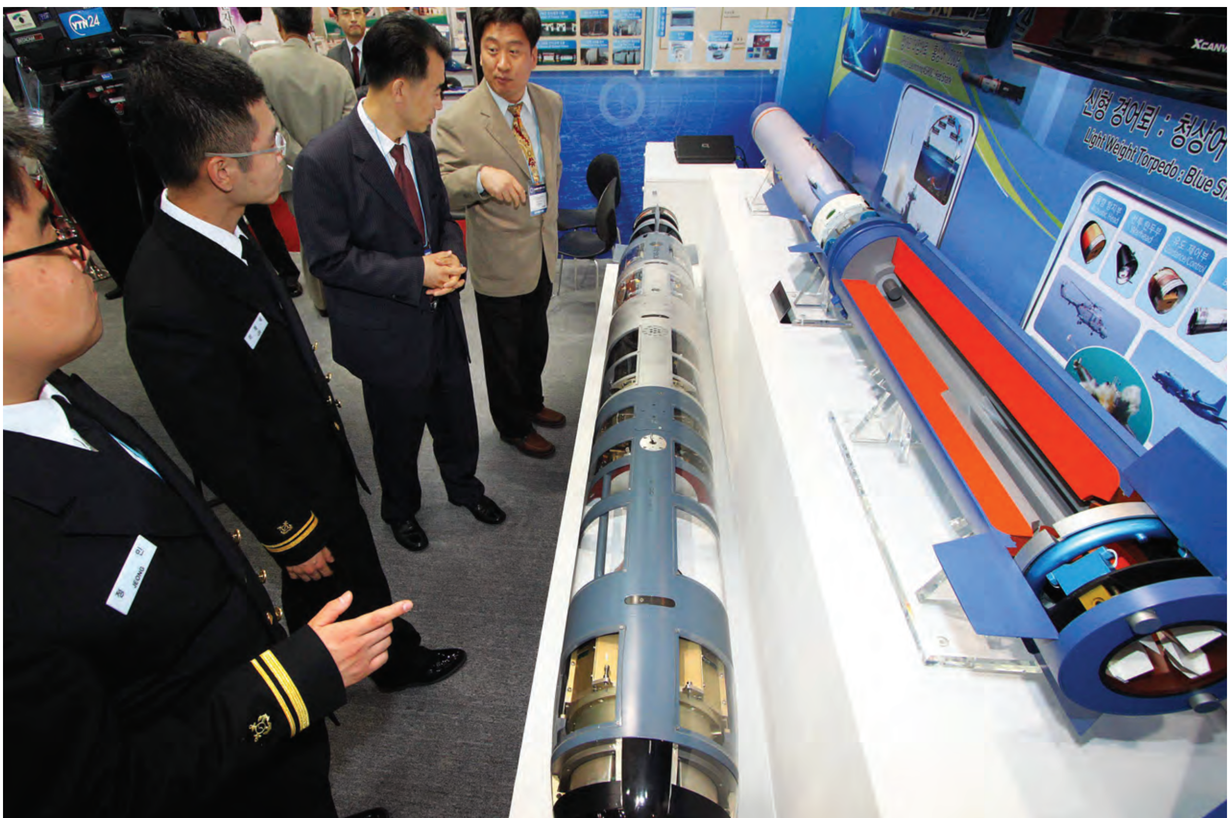
'기뢰수뢰'의 준말로, 수면 밑에서 폭발하는 장치를 가진 폭약통이다. 한마디로 '물속의 지뢰'다. 부설 위치에 따라 계류기뢰, 부유기뢰 및 해저기뢰 등으로 분류하며 감응폭발장치에 따라 접촉기뢰, 압력기뢰, 음향기뢰, 자기기뢰 및 복합기뢰로 분류한다.

폭뢰(爆雷 · Depth Charge)

수중폭탄의 일종이다. 주로 잠수함에 손상을 가하기 위한 폭파병기로, 수심 조정에 의한 수압이나 접촉에 의해 폭발된다. G

글 · 박경아 기자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신형 어뢰 홍상어(왼쪽)와 청상어가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조선해양 대제전에 전시되어 있다.



동아DB

"새터민도 대한민국 국민 좀더 따뜻한 관심 줬으면"

'용기있는 국제여성상' 받은 탈북 여성 박사 1호 이애란 교수

탈북 여성 최초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애란 경인여대 교수가 미국 국무부로부터 올해의 '용기 있는 국제여성상'을 받았다. 1997년 북한을 탈출한 후 새터민들의 정착에 힘써온 공로로 이 상을 받은 이애란 교수는 "이번 수상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회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이애란 박사는 어린 시절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8년을 보냈고, 역경을 딛고 북한을 탈출한 후에는 새터민(탈북자)들의 정착과 인권 보호를 위해 쉼 없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 국회의원에 도전한 최초의 탈북 여성이며, 수상자로 결정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겸손한 분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는 지난 3월 10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탈북 여성 1호 박사인 이애란(46) 경인여대 교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이 교수는 미셸 여사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 장관이 공동 수여하는 '용기 있는 국제여성상(Award for International Women of Courage)'을 받았다.

이 상은 미 국무부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전후해 여성 인권이나 정의 실현에 공이 큰 여성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 올해는 이 교수를 포함해 여성 인신매매와 인권 차별에 맞서 싸우거나 여성 지위 향상에 헌신해온 세계 각국 여성 10명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 대사가 후보로 추천한 이 교수는 처지가 어려운 탈북 여성의 정착과 자활에 많은 도움을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 힐러리 장관은 "새터민들의 삶과 교육 수준을 증진시키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리는 일에 앞장서왔다"고 그의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1997년 생후 4개월 된 아들과 부모를 이끌고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숱한 역경을 이겨냈다. 2005년 '1990년 전후 북한 주민의 식생활 양상 변화'를 다룬 논문으로 이화여대에서 식품영양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08년에는 국민실향안보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올해부터 경인여대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다.

지난 3월 19일, 하루 전날 귀국한 그를 만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북한전통음식문화연구원을 찾았다.


조영철 기자

"한국에서는 새터민을 같은 핏줄로 여기기보다는 이주노동자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주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해 오지만, 새터민에게 한국행은 삶 자체가 그 목적이다."

상을 받은 소감은.

해야 할 일을 했기에 쑥스럽다. 한편으론 이번 수상이 북한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나라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기도 하다. 나 말고도 새터민들의 자활과 정착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정말 많다. 그분들을 대표해 받은 만큼 더 잘하라는 격려이자 새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상이라고 생각한다.

미셸 여사나 힐러리 장관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

미셸 여사가 내가 입은 한복을 보고 '원더풀' '뷰티풀'을 연발했다. 한복을 입고 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여성이자 어머니라서 만나면 새터민의 교육과 인권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그럴 만한 시간은 없었다. 대신 축사에서 내 얘기를 유독 많이 하며 깊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했다. 미 국무부뿐 아니라 강연에서 만난 많은 미국인들이 새터민의 정착과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연합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오른쪽)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이애란 교수의 '용기있는 국제여성상' 수상을 축하하고 있다.

꾸준히 새터민들의 자활과 북한 인권 회복에 힘써왔는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와 인권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모든 새터민은 그런 북한 주민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고, 탈북 후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새터민의 당연한 의무다. 더구나 나는 탈북 후 한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 석·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 자리까지 얻었다. 내가 받은 혜택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내 미약한 힘이 사회에서 차별받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새터민의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새터민들이 이력서에 솔직하게 탈북 사실을 기록하면 취직이 되지 않는다. 북한 사투리를 쓰는 것도 취직하는 데 장애가 된다. 그래서 매주 한 번씩 탈북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탈북청년크리스천연합'이라는 모임을 열어 장학금도 주고, 한국 정착 노하우도 전수하고, 발음 교정을 해주는 '스피치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최창섭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이 스피치 강사를 맡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스피치 아카데미를 통해 발음 교정에 성공한 학생들이 많다.

한국에서 새터민을 많이 차별한다고 보나.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새터민'이라고 놀림을 받곤 했다. 아들은 생후 4개월 때 한국에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이 가슴 아팠다. 또 새터민이 결혼하면 시집식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기 일쑤다. 한국에서는 새터민을 같은 핏줄로 여기기보다는 이주노동자처럼 보는 경향이 있다.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이주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오지만, 새터민은 삶 자체가 목적이다. 우리 사회에서 새터민들을 같은 민족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더 따뜻하게 감싸줬으면 좋겠다.

새터민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에 약 2만명의 새터민이 살고 있다. 그들이 잘 정착하지 못해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새터민이 한국에서 잘 자리 잡고 살게 되면 그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극이 될 것이다. 또 언젠가 통일이 됐을 때도 한국 정착에 성공한 새터민들이 북한 주민들의 사회 적응을 앞장서서 도울 거라고 본다.

새터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지금도 정부에서 새터민들의 생활안정과 직업훈련 등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감사하다. 다만 지원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일례로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터민과 말이 잘 통하는 새터민 출신의 직업훈련 강사를 먼저 양성했으면 한다. 북한말과 한국말이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 언어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다.

정부에서 새터민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수요자인 새터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됐으면 한다. 아울러 새터민들 스스로도 정부와 사회의 도움을 바라기 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는 탈북 청년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나갈 것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독도·동해 수호… 10년 뒤에도 뜨겁게 일할 것"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81세 최고령 회원 최종성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한국을 전 세계에 바로 알리고 독도와 동해를 지키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2004년부터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성 씨(81·경남 마산시)는 반크의 최고령 회원이다. 올 1월에는 반크가 추진하는 '월드 체인저 사업'의 글로벌 리더로 선정돼 인생 3막을 설계하고 있다.

월드 체인저 사업이란 지난해 9월부터 이 단체가 빈곤, 테러, 지구온난화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로부터 세계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 최 씨는 반크가 이 사업을 전개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세계를 구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며 신청서를 제출했고, 한 달 간 진행된 교육에서 최고 성적을 받아 '최고 월드 체인저'로 선정됐다.



올해 81세인 최종성 씨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최고령 회원이다.
75세에 반크 회원이 돼 영어공부를 해가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데 앞장서왔다.

"부족한 늙은이를 최고 월드 체인저로 선정해 줘 기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일단 참여했다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십시오."

최 씨는 "지구촌 기후변화 문제에 충격을 받았고, 지구촌이 공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빈곤 퇴치를 위해 나부터 후원 회원으로 가입할 것이고, 도움을 주는 손길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변은 물론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리는 독도나 간도 문제,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지면 흥분부터 하는데, 화풀이식 규탄 시위를 하거나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북북 찢어봐야 스트레스는 풀릴지언정 길게 보면 더 손해입니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큰 지금은 인터넷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외활동 위해 '영어 열공' 열정… '최고 월드 체인저' 선정

반크의 젊은 회원들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최 씨는 17세 때인 1947년 국방경비대에 입대해 6·25전쟁 중이던 1951년 소위로 임관했다. 강원 횡성 전투에서 중공군에게 붙잡혀 포로생활을 하다 1953년 풀려난 후 29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1975년 중령으로 전역했다. 예편 후에는 마산에서 일상적인 생활에 묻혀 있다가 인터넷 서핑 중 우연히 반크의 활동을 알게 돼 회원이 됐다.

그는 더 많은 나라에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2005년 76세의 나이에 마산대 평생교육원에 입학해 영어를 배우기도 했다. 또 각국의 교과서와 웹사이트에 한국의 영토와 역사가 왜곡돼 있는 부분을 조사하고, 인터넷 펜팔로 외국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귀면서 한국을 홍보했다. 이런 활동에 힘입어 반크의 한국 홍보대사, 아시아 평화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우리는 독도나 간도 문제, 일본과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가 불거지면 흥분부터 하는데, 화풀이식 규탄 시위를 하거나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를 북북 찢어봐야 스트레스는 풀릴지언정 길게 보면 더 손해입니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큰 지금은 인터넷부터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 씨는 "10년 뒤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젊은이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토로했다. G

글·왕길환(연합뉴스 기자)

"침 한 방에 벌떡! 바로 이거다 했죠"

서양인 최초 한의사 라이문트 로이어



자생한방병원

벽안의 한의사 라이문트 로이어 씨는 한의학의 세계화를 꿈꾼다.

> 한약 고유의 향기에 매료됐어요.
> 아픈 곳은 발목인데 손, 발가락, 귀 뒤 등에 침을 놓는 것도 신기했고요. 더 놀랐던 것은 침을 맞고 바로 통증 없이 걷게 된 거예요. '이거다' 싶은 게, 순간 머릿속이 '뻥' 뚫리더군요.

"어디가 아프세요?"

푸른 눈의 한의사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환자의 맥을 짚는다. 오스트리아 출신 라이문트 로이어(46) 씨다. 중국이나 대만 출신 외국인 한의사는 여럿 있어도 서양 출신 한의사는 그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다. 강남 오당한의원 부원장과 강남인한의원 원장을 거쳐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로이어 씨는 자신이 한의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말했다.

처음 한국을 찾은 것은 1987년 가을. 3개월간의 배낭여행이 목적이었다. 생소한 나라였지만 한국의 인상은 참 좋았다. 사람들은 활기차고 친절했다. "매일 종로 한복판을 걷곤 했다"는 그의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커져갔다. 한식, 불교, 태권도 등을 닥치는 대로 배웠다. 그는 특히 "태권도가 신기하면서도 재밌었다"고 말했다. 욕심이 너무 과했던 것일까. 태권도를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 발목을 다쳤다. 주위에서 한의원을 추천했다.

"한약 고유의 향기에 매료됐어요. 아픈 곳은 발목인데 손, 발가락, 귀 뒤 등에 침을 놓는 것도 신기했고요. 더 놀랐던 것은 침을 맞고 바로 통증 없이 걷게 된 거예요. '이거다' 싶은 게, 순간 머릿속이 '뻥' 뚫리더군요."

한의학이 그에게 '꽂히는' 순간이었다. 약초, 침, 뜸, 부항 등 한의학의 모든 것이 궁금해졌다. 결국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서 한의학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한국어와 한문을 배우는 2년의 준비기간 끝에 1991년 대구한의대(옛 경산한의대)에 입학했다. 학부 6년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그를 버티게 한 건 한의사를 향한 꿈이었다.

한국 온 지 24년이 흐른 지금 그는 인정받는 한의사가 됐다. 결혼도 한국 여성과 했다. 이제 한국은 그에게 제2의 모국이다. 하지만 '한의학 예찬론자'인 그는 한국에서 한의학이 홀대받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한의학이 임상에 약한 건, 같은 감기라도 환자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르게 처방하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침과 한의학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독일에서는 침이 국가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되고, 독일 의사 가운데 3만~5만명가량이 환자에게 침을 놓습니다. 이제 누구도 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한의학, 외국인에 문호 넓히고 교류 확대해 나가야"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국내 현실도 안타깝다. 그는 "서양 출신 한의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나 혼자뿐"이라며 "외국인에 대한 문호를 넓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약도 세계화해야 합니다. 세계적 제약회사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한약도 품질을 규격화하고 검증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한의사협회 홍보위원을 거쳐 현재는 국제약침학회 이사로 활동 중인 그는 "한의학의 우수성과 효능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희망했다. G

글 · 김미영(한겨레신문 기자)

직업탐색 기간 늘고 평생직장 기회도 늘어

지난 2월의 청년실업률이 10년 만에 10퍼센트에 달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얻지 못한 자녀들의 부모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조급함에 일단 아무 데라도 취직하고 보자고 생각하기 쉽다. '경제가 어려우므로 실업은 무조건 피해야 되고 찬밥 더운밥 가릴 것 없다'는 강박관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년층의 실업률이 유독 높은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만 청년실업률이 유달리 높은 것인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인지 살펴봐야 한다. 실업탈출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장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청년실업률은 경제 전체 실업률의 2~2.5배에 달한다. 2월 현재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0퍼센트이고 이는 전체 실업률 4.9퍼센트의 2.04배다. 미국에서도 청년실업이 극심하다.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해 7월의 경우 18.5퍼센트로 이는 미국 전 연령 실업률 9.4퍼센트의 1.97배 수준이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전 연령 실업률의 2배 수준이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 13개국의 2008년 평균 청년실업률은 13.1퍼센트고, 우리나라는 이들 가운데 5위 이내로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그룹에 속한다.

청년 실업률 선진국에 비해 양호

선진국가의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경제가 발전해 선진국이 될수록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신규 채용보다는 경력직 채용 비중이 높아져 신규 채용 대상인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 청년층의 경우 30, 40대 경력자보다 어느 일자리가 자신에게 적합할지 모르고 또 어디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 취업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단 취업을 해도 일과 '궁합'이 잘 맞지 않을 경우



일러스트 · 이우정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대학을 찾아다니며 우수한 인재를 모집하는 '캠퍼스 리크루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두산그룹 캠퍼스 리쿠르팅.

주요 13개국의 청년(15~24세) 실업률

	1990	1995	2000	2005	2008
스페인	30.2	40.4	25.3	19.7	24.6
이탈리아	31.5	31.9	29.7	23.9	21.3
스웨덴	4.6	19.5	11.9	14.4	20.2
프랑스	19.1	25.9	20.7	18.5	17.2
영국	10.1	15.3	11.7	12.2	14.1
미국	11.2	12.1	9.3	11.3	12.8
캐나다	12.0	13.9	11.7	12.4	11.6
아일랜드	17.7	19.1	6.4	8.3	10.5
독일	4.4	8.2	8.4	15.2	10.4
한국	**7.0**	**6.3**	**10.8**	**10.2**	**9.3**
호주	13.0	15.4	12.1	10.3	8.6
일본	4.3	6.1	9.2	8.7	7.2
네덜란드	11.1	12.8	6.1	9.0	5.6

출처 · 미국 노동통계국(1990~2000), 국제노동기구(2005~2008), 국가통계포털 (단위 %)

한국(15~29세)	5.5	4.6	7.6	7.6	6.8

※한국은 군복무로 취업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에 보통 청년실업률은 15~29세를 대상으로 측정해옴.

> **선진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이나 청년들의 부모들이 더 오랜 직업탐색 기간, 즉 오랜 구직실업 기간을 감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직이 잦고 구직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청년층은 장년층에 비해 이직이 2.5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신규 졸업생들 중에 취업난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는 시차효과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직장을 찾는 경우 시기별로 실업률 차이가 많이 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8년의 경우 졸업 후 3개월 시점에는 청년실업률이 54.5퍼센트였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면 13퍼센트로 떨어지고 1년 후에는 다시 11.3퍼센트로 떨어졌다.

2009년 통계청 자료에서 전체 신규 졸업자의 첫 직장 취업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6개월 미만이 전체의 65퍼센트 수준이고 평균 취업소요 기간은 약 11개월이다.

실업자를 '백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말에는 할 일 없이 무작정 놀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나 실제 실업은 경제적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위에 해당된다. 실업자의 경제학적 정의가 구직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은 역설적으로 인적자원을 향상하는 노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간 걸리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찾는 노력 필요

교육훈련만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더 나은 직장과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기여하므로 결과적으로 교육훈련과 동일하게 인적자원의 가치를 높여준다. 특히 청년층은 학업에 힘쓰는 것과 함께 적극적인 직업탐색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신에게 적합하고 좋은 일자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일수록 소득과 복지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교육투자와 함께 직업탐색 노력도 오래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직업탐색에 따른 부담과 기회비용이 더 적기 때문이다. 반면 후진국일수록 당장 일을 해야 먹고살 수 있기에 직업탐색을 오래 할 수 없다. 아무 일자리라도 빨리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연령층 실업률이 동일할 경우 저소득국가보다 고소득국가의 청년실업률이 높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청년들이나 청년들의 부모들이 더 오랜 직업탐색 기간, 즉 오랜 구직실업 기간을 감내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청년실업률이 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실제로 2002년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유보임금(근로자가 고용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임금)은 2천4만원이고 실제임금은 1천7백25만원으로 충족률(실제임금/유보임금)이 86.1퍼센트였는데, 2007년엔 유보임금이 2천9백49만원, 실제임금이 2천1백99만원으로 충족률이 74.6퍼센트로 하락했다.

이렇듯 소득수준과 복지수준이 향상되면 상대적으로 유보임금 상승률도 높아져 구직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이는 청년실업률 증가의 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종국적으로 임금이 높고 오래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G

글 · 이대창(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인력수급의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이 경력관리에 디딤돌이 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IT기업과 청년인재를 연결해주는 '2009 한마음 일자리 엑스포'.

교육부터 인력 매칭까지 "두드리세요"

'잡영', '차차차' 등 52개 청년취업 프로그램 운영

정부는 5만5천 개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52가지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과 직업능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해외취업도 적극 지원한다.

지난 2월 지방 국립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모(27) 씨는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 대기업에 지원했다 여러 번 낙방한 김 씨는 고민 끝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좁은 대기업 문을 뚫는 것보다 우량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을 쌓은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하지만 어떤 기업이 좋은지, 급여나 복지 수준은 어떤지 알 길이 없어 막막했다.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대졸자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막상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급여나 복지 수준,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졸자에게 믿을 만한 우수 중소기업 채용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국가 취업포털사이트 '잡영'(jobyoung.work.go.kr)을 열었다. 잡영은 특히 중소기업청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정한 5만5천여 개 기업의 인재상, 복리후생, 임금 수준, 근속년수, 근무시간, 채용 시 우대사항, 인사 담당자 인터뷰 등 구직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회사의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재무제표가 공개돼 있어 구직자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준다.

3월 31일 기준으로 5천9백31건의 채용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채용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업종, 기업 형태(우수 중소기업, 대기업, 공기업 등), 임금 수준 등으로 나눠 검색할 수 있다. 또 1백 퍼센트 일치하는 정보뿐 아니라 원하는 임금, 직종, 근로조건 등이 유사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

트 매칭(Soft Matching) 검색 서비스를 적용해 한층 더 풍부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매칭의 장을 제공하는 e채용마당도 마련돼 있어 구직자가 온라인상에서 우수 중소기업에 직접 입사 지원서를 낼 수 있다.

잡영은 채용정보뿐만 아니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샘플 서식, 면접 가이드, 채용행사, 공모전, 취업 뉴스, 관심기업 채용정보 자동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콘텐츠도 제공한다. 특히 이력서 사진 수정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다.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한 뒤 게시판에 사진을 올려놓으면 크기, 머리 모양, 넥타이 색상, 배경 등을 원하는 대로 수정해준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고 있는 다양한 해법 가운데 하나가 중소기업 인력 수급의 미스 매치(Miss Match) 해소다. 중소기업 취업이 경력 관리에 디딤돌이 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잡영이 청년층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잡영' 우수 中企 정보 한자리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적성 및 진로 탐색, 직장체험을 해볼 수 있으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글로벌취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력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 및 직업능력을 길러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취업포털사이트 '사람인'과 노동부가 함께 실시한 조사에서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취업 마인드 고취'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24.1퍼센트, '취업스킬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8.2퍼센트,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13.3퍼센트로 나와 이 프로그램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우미 노릇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개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52개의 청년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사이버홍보관 '으라차차차 힘내라 청년아'(www.chachach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3월 22일 문을 연 2기 '으라차차차 힘내라 청년아'에는 청년 취업에 대한 정책정보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한 정보와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커뮤니티 공간이 신설됐다.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는 '청년취업정보', 장점을 업그레이드시켜주는 '스펙 Up', 자신이 알고 있는 취업성공 비법 및 면접 노하우를 공유하는 '취업 노하우' 등이다.

노동부 강현철 청년고용정책 과장은 "으라차차차 시즌 2가 정부 청년고용 정책의 허브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구직도 해외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정부도 해외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3월 31일

> **지난해 3천6백59명이던 해외취업자를 4천5백명으로 늘리기 위해 산업인력공단과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외 현지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현지기업과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해외 한인 상공회 모임 등을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정부지원협의회'를 열어 올해 해외취업 규모를 4천5백명으로 늘리고 해외인턴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2010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지난해 3천6백59명이던 해외취업자를 4천5백명으로 늘리기 위해 산업인력공단과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외 현지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현지기업과 취업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국내외 민간 전문취업알선기관 10곳을 올해 신규로 선정하고 해외공관, 코트라, 한상(韓商)대회, 해외 한인 상공회 모임 등을 통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등 우수기관에서 무급 인턴으로 근무 시 생활비를 지원하고 일률적인 어학연수 기간도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참여자들에게도 항공료와 구직 알선료,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취업, 해외 취업연수, 해외인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등에 대한 정보는 글로벌리더 종합정보망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G

글 · 이혜련 기자

워크넷 www.work.go.kr
잡영 jobyoung.work.go.kr
으라차차 힘내라 청년아 www.chachacha.go.kr
글로벌리더종합정보망 www.globaljump.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국 취업지원1팀 Tel 02-3274-9795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Tel 02-2110-7180

"성공을 꿈꾸자… 우린 아직 젊잖아"

'실업 타파' 준비된 4인의 취업 성공기

이구동성으로 청년취업이 바늘구멍이라고 한다. 하지만 힘들어도 씩씩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나선 이들이 있다. 도전과 성취라는 이름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젊음을 만나보자.

유정연 | 일본 기업 '하로'
"'월드잡' 활용해 꿈꾸던 해외취업 성공"



올해 연세대를 졸업한 유정연(24) 씨는 진작부터 갖고 있던 해외취업의 꿈을 이뤘다. 모바일 웹에서 마케팅을 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지원 업무를 하는 일본 기업 '하로'에 입사하게 된 것이다. 대학 입학 후 줄곧 일본어를 공부했고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한 학기 동안 휴학하고 동아시아재단에서 인턴으로 일한 것도 모두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인턴 활동을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이들을 만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유 씨는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제주평화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며 '세계 속의 인재'가 되고 싶다는 꿈을 더욱 굳혔다. 해외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월드잡' 서비스를 알게 된 후에는 본격적으로 해외취업 준비에 나섰다. 특히 지원하는 회사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가지고 면접에 임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외국에서는 학과나 학점보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더욱 중요하게 보더군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알릴 수 있는지 많이 고심하고 준비했어요. 다행히 교환학생과 인턴 시절의 다양한 경험이 도전의식과 열정을 말해주는 좋은 징표가 됐습니다."

덕분에 원하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유 씨는 다음 목표를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는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금의환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성진 | 성동구치소 공무원
"행정인턴으로 시작해 공무원 시험 합격"

많은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한다. 서울산업대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 김성진(30) 씨 역시 취업 준비를 위해 대학 3학년 때부터 이른바 '스펙 쌓기'에 공을 들였다. MS오피스와 건축기사 자격증도 땄고 남부럽지 않은 토익 점수도 받았다. 특별한 경험을 위해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한 해외플랜트 건설인력 양성교육도 거쳤다. 하지만 냉혹한 취업시장에서 김 씨는 그저 평범한 취업준비생일 뿐이었다. 대기업에 지원했지만 최종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했다.

그러다 지난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인턴제를 알게 됐다. 김 씨는 인턴을 통해 일도 배우고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겠다 싶어 지원했다. 행정인턴으로서 그가 맡게 된 일은 성동구치소의 시설관리 업무. 시설 개선 및 수용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외에 국유재산 관리 등을 담당하는 6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통해 그는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살아 있는 지식과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인턴으로 근무하는 중에 9급 채용공고가 났고,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것과 성실한 태도가 장점으로 부각돼 취업에 성공하게 됐다.



"업무는 인턴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 더 강한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혁신하는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아이템으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일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김설 | 호텔 예약업체 '메이트아이'

"청년 인턴제로 내 꿈에 한 발 더 가까이"

호텔 예약업체 '메이트아이'에 근무하는 김설(24) 씨는 밝고 환한 미소로 직장에서 인기가 높은 신입사원이다. 김 씨는 원래 호텔리어를 꿈꿨다. 한국관광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고 토익, 와인, 마케팅, 관광 등 다양한 공부를 하며 실력과 열정을 가다듬어나갔다.

하지만 꿈을 이루는 길은 요원했다. 수백, 수천의 지원자들 중에서 호텔리어로 선택되는 건 고작해야 3~5명뿐이었다. 다른 관광기업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더욱 힘들었던 점은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이력서를 내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력직 혹은 아르바이트생을 원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있을 때 취업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곳이 청년인턴제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메이트아이였다.

"6개월의 인턴과정 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인턴이었을 때도 실제 업무와 같은 업무분배를 하고 일을 통해 배울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업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죠."

현재 김 씨는 취업을 준비하며 공부했던 것들과 인턴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유용하게 활용하며 국내 예약 진행과 고객 상담을 맡고 있다. 김 씨의 꿈은 더 열심히 일하고 배워서 언젠가 직접 여행사나 온라인 예약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나상현 | 카페 '퀴즈피플' 대표

"창업 교육·지원받아 남다른 아이템으로 창업"

퀴즈를 테마로 한 놀거리 공간인 퀴즈카페 '퀴즈피플'을 운영하는 나상현(30) 대표는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지난해 3월과 10월에 문을 연 퀴즈피플 신촌점과 홍대점에 이어 지난달에는 프랜차이즈 사업부까지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들 매장 2곳의 매출만 해도 연 3억원이 훌쩍 넘고 프랜차이즈 문의도 벌써부터 줄을 잇고 있다.

퀴즈피플이 이처럼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남다른 아이템과 콘텐츠 덕분이다.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업 아이템을 찾아 고민해온 나 대표가 찾은 답은 '퀴즈'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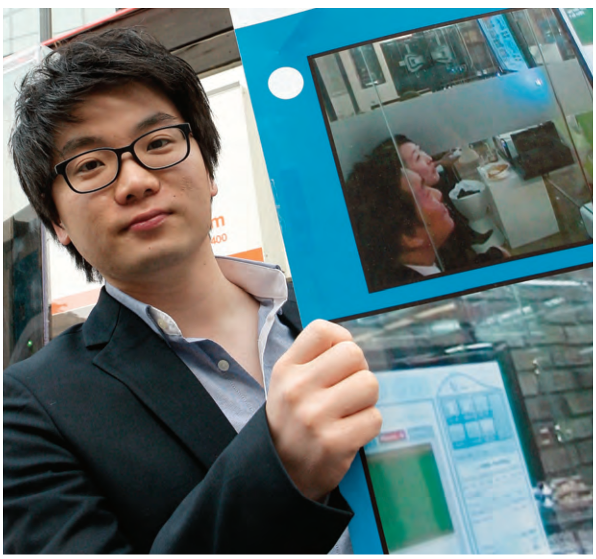
"퀴즈를 TV나 인터넷이 아닌 카페에서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만든다면 새로운 '놀거리 공간'의 창출이 가능해지리라 여겼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절대 안전'한 사업은 없거든요. 아이템에 대한 객관적인 확신과 열정적인 실천만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줄 뿐이죠."

나 대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것은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다 군 복무를 마친 뒤부터. 무료로 진행되는 서울창업스쿨과정을 수료하고, 그곳의 보증으로 소액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했다. 그리고 전공을 살려 직접 제작한 샘플로 프로모션툴 제작업체 '엔이씨'를 창업하고 그 운영 이익을 통해 퀴즈카페 창업 기반을 닦았다. 이처럼 자신의 손으로 미래를 개척해왔기에 나 대표는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과감해지라"고 충고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추진력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으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G

글 · 김성주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회사에서 '진짜' 원하는 자격증은 바로 이것!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서류전형에서부터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비슷한 실력의 경쟁자들 사이에서 기업 인사담당자의 눈길을 끌려면 기업에서 우대해주는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국가기술자격검정에는 3백93만9천6백54명이 응시해 21.4퍼센트인 84만여 명이 합격했다. 취업이 어려울수록 국가기술자격증이 경쟁력이 된다는 판단에서 응시자가 늘고 있는 것. 그러나 산업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져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격증도 적지 않다. 애써 딴 자격증을 '장롱 속 자격증'으로 묻어두지 않으려면 기업이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고, 어떤 점에 혜택을 주는지 파악해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전자, 기계, 통신 등 23개 업종의 사업체 인사담당자 1천명을 대상으로 각 업종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국가기술자격증과 혜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원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우대 혜택은 토목과 에너지산업 분야가 가장 높았다.

자격증을 가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서 받는 혜택은 '채용 시 우대'가 79.6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격수당 등 임금 혜택' 59.4퍼센트, '교육·훈련기회 우선 제공' 47.9퍼센트, '승진 시 유리' 43.1퍼센트 순이었다. 대체로 기업 10곳 중 8곳은 채용 때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자격증이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용 시 우대 혜택은 토목(94.1퍼센트)과 에너지(91.1퍼센트) 분야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고, 임금 혜택은 토목(94.1 퍼센트), 에너지(82.2퍼센트), 농림(80.0퍼센트) 분야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구직 원하는 업종에 맞는 자격증 파악하고 취업전략 세워야"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증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 업종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와 용접기사가 많았고, 전기 업종은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전자 업종은 전자기기기능사와 전자캐드기능사, 건축 업종은 건축기사와 실내건축기사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요행 연구위원은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업종에서 중요하게 요구하는 자격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취업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5백40여 개의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업체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소수"라며 "자격증도 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G

글 · 이혜련 기자

동아DB



대체로 기업 10곳 중 8곳은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직장생활 중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

각 업종에서 1순위로 요구하는 자격증

분야	자격증	요구도(%)
기계	지게차운전기능사	57.4
금속	전기(산업)기사	72.0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기능사 및 산업기사	91.1
전기	전기(산업)기사	86.0
전자	전자기기 기능사	58.0
통신	정보통신(산업)기사	68.0
토목	토목(산업)기사	82.4
건축	건축(산업)기사	86.0
섬유	양장(패턴)기능사	100
광업자원	화약취급(산업)기사	86.4
정보처리	정보처리(산업)기사	94.0
국토개발	조경(산업)기사	91.1
농림	산림(산업)기사	64.4
산업디자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68.9
에너지	에너지관리(산업)기사	100
안전관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분야)	71.1
환경	대기환경(산업)기사	76.0
교통	교통(산업)기사	100

※ 요구도 : 기업에서 해당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비율.


조영철 기자

정말 효과 있을까… 혹시 장삿속 아닐까?

알쏭달쏭 화장품 정보 여기 다 있네

cosmetics.kfda.go.kr

지금까지 화장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결했나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친구에게 물어도 어쩐지 답변에 믿음이 가지 않았다고요? 이젠 안심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백 퍼센트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정보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했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정보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해 화장품의 성분별 특성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피부 트러블이 심해 기초 보습제 외에는 화장품을 거의 쓰지 않았던 주부 조인경(39) 씨. 화장을 잘 하지 않다 보니 화장품 정보에 비교적 어두웠던 그가 요즘은 화장품 전단지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친구나 화장품 판매점에 정보를 묻기 시작했다. 노화 방지를 위해 이젠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야 할 것 같아서다.

하지만 전단지나 판매원의 설명만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았다. 물건을 팔기 위한 '장삿속' 같기도 하고, 전문성도 떨어져 보였기 때문이다. 친구들의 조언 중에도 잘못된 정보가 종종 있었다.

이처럼 메이크업 초보이거나 화장품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창구가 생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개설한 화장품 정보서비스 사이트가 그것이다. 이 사이트는 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성분별 특성을 알려주는 한편 올바른 화장품 보관법, 사용 시 주의사항, 기능성 화장품 허가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모아놓았다.

e북 형태로 피부 관리 실속 정보까지 한눈에

화장품 제품 설명서에 표기된 수십 가지 화학성분을 봐도 도대체 어떤 성분인지 알 수가 없어 설명서가 무용지물로 여겨졌다면 사이트의 '안전성 정보방'을 참고할 것. 사이트에 들어가면 화장품 원료 중 배합이 금지되거나 배합 한도가 지정된 성분의 이름을 열람할 수 있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 목록도 검색할 수 있다.

'생활정보방'에는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피부 관리의 기본 상식 등 실속 정보가 e북(전자책) 형태로 실려 있다. '주름 개선이나 미백 화장품은 피부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 '제모제를 데오드란트와 같이 써도 될까?' '스키장에 갈 때도 자외선 차단제가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어떤 제품이 적당할까?' '어린 아이들도 피부 보습제를 써야 할까?' 등등 화장품에 대한 각종 궁금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자신이 사용하거나 구입하려는 기능성 화장품이 기능성 심사를 제대로 받은 허가 제품인지 여부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화장품의 리스트가 모두 올라 있기 때문. 이 밖에 '민원정보방'에는 소비자 이외에 화장품 업체가 궁금해하는 고시 제·개정 현황, 허가·심사 절차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최보경 화장품연구팀장은 "앞으로 배합 금지·배합한도 지정 성분이나 기능성 화장품 허가 품목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추가 사항이 생길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생활정보방의 e북도 계절에 따라 소비자들이 궁금해할 정보를 때맞춰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화장품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기타 사항이나 사이트 내용과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e메일(55kim@korea.kr)로 보내주면 이를 사이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G

글 · 김정희 객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 Tel **1577-1255**

한국인 도박중독 선진국의 '3~5배'

사행산업감독委, 예방·치유 센터 연다

한번 빠져들면 멈출 수 없는 도박의 유혹, '타짜 병(病)'을 치료하라.

우리나라 성인들의 도박중독률이 외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사감위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해 3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도박중독자는 전체 성인의 9.5퍼센트인 약 3백5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2백70만여 명은 상담이 필요하고 80만여 명은 당장 치료를 요하는 심각한 상태다.

국내에선 도박중독 여부를 측정할 때 국제적으로 공인된 CPGI(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진단을 위한 척도)와 KNODS(개인치료에 초점을 둔 척도)를 사용하는데 이번 사감위 조사에서는 CPGI 방법이 활용됐다. 한국인의 CPGI 기준 도박중독률 9.5퍼센트는 캐나다(2.2퍼센트), 호주(2.4퍼센트), 영국(1.9퍼센트) 등의 나라보다 3~5배 높은 수준. 하지만 국내 사행업체들이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2009년 기준 1백17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사행업체들의 순매출 대비 약 0.3퍼센트 수준으로, 한국보다 도박중독률이 낮은 캐나다, 호주 등의 사행업체들이 순매출의 2퍼센트대를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지출하는 것과 대조된다.

강제성·실효성 가진 법 개정안도 추진

사감위 이용승 조사홍보팀장은 "현재 사감위에는 불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전무하기 때문에 향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성과 실효성을 가진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5월 중으로 수원과 부산에 도박중독 예방·치유 지역센터를 개소하고 향후 지역센터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할 목적으로 2007년 9월 발족한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G

글 · 문상훈 객원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사홍보팀 Tel **02-3704-0550 www.ngcc.go.kr**


동아DB

도박중독 자가진단 테스트

- □ 일, 공부 대신 도박으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 □ 도박 때문에 가정을 불행하게 했다
- □ 도박이 내 평판에 나쁜 영향을 끼쳤다
- □ 도박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 □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박을 했다
- □ 도박이 능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됐다
- □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도박으로 되찾겠다고 생각했다
- □ 도박으로 돈을 딴 후에도 더 따야겠다는 충동을 느꼈다
- □ 수중의 돈이 떨어질 때까지 도박을 한다
- □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 □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팔아서 도박을 했다
- □ 도박 밑천 생각에 생활비조차 아깝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 □ 도박으로 가족들과의 생활이 소홀해졌다
- □ 계획했던 시간 이상으로 도박을 했다
- □ 걱정거리를 피하기 위해 도박을 했다
- □ 도박 밑천 마련을 위해 나쁜 일을 계획하거나 해본 적이 있다
- □ 도박이 수면을 어렵게 했던 적이 있다
- □ 부부싸움, 의견대립, 실망 등이 도박충동을 일으킨다
- □ 단기간 도박으로 큰돈을 벌겠다는 충동을 느낀다
- □ 도박 문제로 자살, 자해 행위를 생각했다

※위의 20문항 가운데 7개 이상 해당하면 도박중독으로 의심. 〈출처·경기지방경찰청 블로그〉



조영철 기자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올 하반기부터 서울 등 도심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민들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대중교통 편한 곳에 소형주택 더 짓는다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서원석(41) 씨. 작은 공구회사에 근무하는 서 씨는 직장이 있는 서울 가리봉동까지 자동차로 출퇴근한다. 가뜩이나 박봉에 비싼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만 교통편이 여의치 않다. 전철역 주변에 소형주택 전세를 얻을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차를 처분해 전셋집 마련하는 데 보태고 싶은 마음이다.

서울, 특히 역세권의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서 씨처럼 적은 월급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차를 몰고 수도권 외곽의 집에서 직장이 있는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공통된 바람은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의 이러한 바람이 차츰 실현될 전망이다.

지하철 환승역·도로 집결지 인근 60㎡ 이하 주택 건설

올 하반기(6월 30일)부터 도심 역세권 등 재정비촉진지구 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심 역세권의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와 주차장 등 건축기준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란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는 국철, 지하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 교차점 5백 미터 이내다. 지정 대상은 △철도·지하철역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지하철역과 버스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집결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로 서울 군자역, 약수역, 충정로역, 합정역, 신당역 등이 후보지역들이다.

재정비촉진지구는 시군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도 있고, 이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시도지사가 직접 선별해 지정할 수도 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학교시설은 일반 지역에 비해 교지 면적의 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해당 지역 내 주차장 기준도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하도록 했다.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 건설 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또는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늘어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그 밖의 지역은 증가되는 용적률의 25~75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임태모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심 역세권 주변에 부족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 7일까지)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G

글 · 김광숙 객원기자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Tel **02-2110-6240, 6241**

2003년 4월, 스물여덟 김효정(35) 씨는 15킬로그램 무게의 배낭을 메고 서부 아프리카의 모로코 사하라사막 마라톤 출발선에 섰다. 이후 2005년 4월 중국 고비, 2006년 7월 칠레 아타카마, 2007년 10월 동부 아프리카의 이집트 사하라, 2008년 11월 남극…. 그에게는 어느새 '세계 여성 중 세 번째 사막 레이스 그랜드슬래머'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다. 그리고 그 동안의 사막 레이스 경험을 담은 책 〈나는 오늘도 사막을 꿈꾼다〉를 펴냈다. 책을 읽다 보면 그의 '사막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냥 사막이 좋아 떠났어요. 기록을 세워보겠다는 마음이 었다면 진작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사막을 좋아하게 된 이유요? 영화 〈무사〉 제작팀에서 일하던 2000년 중국 중웨이사막에서 처음 매력을 느꼈어요. 50도가 넘는 허허벌판 그곳에서 '바람 한 점도 참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영화 프로듀서인 김 씨는 그 뒤 귀국해 사막행을 결심했다. 신한은행 박중헌 지점장이 한국인 최초로 사하라사막 마라톤에 출전한 모습을 담은 '사하라에서의 7일, 한 은행원의 일상탈출'이라는 방송을 보고, 그는 "온몸이 흔들릴 정도로 심장이 뛰었다"고 했다.

"40대 중반 아저씨도 저렇게 뛰는데 '나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나' 싶었어요. 청춘을 이렇게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 싶어 새벽 수영부터 등록했죠. 몸을 만들려고요."

처음 사하라사막 마라톤에서 김 씨는 달리지 않았다. 지글대는 태양 아래서 뛸 힘도 없었거니와 '경쟁하기'는 이미 한국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부드러운 모래, 시원한 바람, 반짝이는 별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했다.

사막은 그저 낭만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주일의 레이스 동안 내리 12시간이나 화장실을 못 갈 때도 있었고, 발톱이 빠지고 발바닥은 물집투성이였다. 어지럼증은 기본이고, 몸이 붓고 속도 메슥거렸다. 끝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혼자 걸어갈 때의 외로움은 밤이 되면 싸늘한 공포로 변했다. 김 씨는 "20, 30대를 보내면서 알지 못한 '동행'의 가치를 온몸으로 깨우쳤다"고 했다.

열병처럼 떠난 사막… '동행'의 가치 온몸으로 깨우쳐

그러나 무엇보다 사막 레이스에 참가하며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낙오'의 두려움이었다고 했다.

"2005년 고비사막이 최악이었어요. 출발한 지 30분 만에 코스를 이탈하고 말았으니까요. 앞선 이들의 발자국은 물론, 코스를 표시하는 분홍 깃발도 보이지 않았죠. 비상신호용 호루라기를 꺼내 20분 동안 불어대며 달렸어요."

그는 거울로 빛을 반사해 구조 신호를 보냈고 그러길 5분 만에 멀리서 행사 진행을 맡았던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왔다. 알고 보니, 인근 마을 주민들이 코스 표시 깃발을 신기하게 여겨 하나 둘 뽑아가 벌어진 일이었다. 그렇게 그는 세계 5대 사막 레이스 1천50킬로미터를 완주했다.

"거의 꼴찌였고, 탈락 2분 전에 골인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박수는 많이 받았습니다. 사막에선 꼴찌에게 가장 많은 갈채를 보내거든요. 누구를 이겼느냐보다 자신을 이겼느냐를 더 값지



조영철 기자

"50도 넘는 벌판… 바람 한 점도 아름답다"

'사막 레이스 그랜드슬래머' 김효정

평범한 30대 여성이 동양 여성으로는 처음, 세계 여성으로는 세 번째 사막 레이스 그랜드슬래머가 됐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뒤로하고 모래 속에 푹푹 발을 내담그는 사막 레이스를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2007년 이집트 사하라 사막마라톤에 참가한 김효정 씨. 엄청난 모래바람을 만났지만 끝까지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진 일리룽필사

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걷는 사이 내 속의 상처들이 아물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김 씨는 사막에서 만난 사람들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막에 간다"며 참가한 60대 일본 할아버지, 군 복무 중 22세의 나이에 수류탄 폭발사고로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 송경태 씨 등 많은 사람들이 그의 추억 속에 남았다.

"사막에서 만난 사람들 기억에 새겼죠"

"2003년 모로코 사하라사막 마라톤에서는 프랑스에서 온 50대 남자 둘이서 손을 맞잡고 사막 위를 걸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병에 걸렸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더 늦기 전에 이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보여주겠다'며 친구를 사막으로 이끌었던 거죠. 그는 사막을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끊임없이 친구에게 설명했어요. 시력을 잃어가는 다른 친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김 씨 같은 사막 레이스 그랜드슬래머는 전 세계 남녀를 통틀어 50명이 안 된다. 완주 메달을 거는 순간, 그도 다른 그랜드슬래머처럼 눈물을 흘렸다. 기쁨보다는 '허무함'에 흘린 눈물이었다.

"목표 달성, 성취 뒤의 허탈감이 그렇게 큰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열병을 앓던 것처럼 꿈꿔온 일이 이뤄지는 순간 가슴이 텅 빈 듯한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공허함에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 **"탈락 2분 전에 골인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박수는 많이 받았습니다. 사막에선 꼴찌에게 가장 많은 갈채를 보내거든요. 그렇게 걷는 사이 내 속의 상처들이 아물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방황도 잠시, 김 씨는 '첫사랑'인 영화의 현장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에게 사막보다 더 황량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그가 일하던 영화사가 대거 정리해고에 들어가면서 김 씨도 33세 나이에 퇴사해야 했던 것. 영화 〈무사〉 〈결혼은 미친 짓이다〉 〈싱글즈〉 등의 제작에 참여하면서 그저 영화가 좋아 초봉 월 50만원에 휴일 없이 근무했던 10여 년이 신기루처럼 흩어졌다. 그는 다른 영화사에 들어가는 대신 사막에서처럼 홀로서기를 택했다. 영화사 '꿈꾸는 오아시스'를 만든 지 한 달 남짓이 됐다.

"첫 작품은 사막을 뛰는 세계 아저씨들의 사연들, 내가 보고 들었던 그 삶들에 관한 겁니다." G

글 · 김남인(조선일보 사람들팀 기자)

“꿈을 잃으셨나요? 꿈을 그려드립니다”

백인몽(百人夢) 도전… 이색 화가 박종신

‘화가’는 알아도 ‘드림 페인터’란 말은 영 생소하다. 그도 그럴 것이, 화가를 꿈꾸던 한 남자가 화가가 된 뒤 사람들의 꿈을 그려주면서 붙인 이름이기 때문. ‘사람들의 꿈을 통해 꿈을 이룬다’는 이 독특한 화가의 이야기를 들었다.

“당신의 꿈을 눈앞에 펼쳐드려요. 당신과 함께 꿈꾸고 이뤄나가고 싶어요.”

꿈. 생각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단어지만 입 밖으로 내본 지가 언제던가. 유년의 꿈은 삶의 더께에 파묻히고 바쁜 일상에 찌들어 마음 속 금고에 자물쇠를 채운 지 오래다. 갇힌 꿈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홀연 의식에서 맴돈다 한들 그냥 웃고 만다.

그런데 그는 호기롭게 꿈을 논했다. 사람들의 꿈을 그려주는 ‘드림 페인터’(Dream Painter) 박종신(38) 씨. 자기소개도 사뭇 꿈결 같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꿈이 이뤄지도록 꿈의 한 장면을 그리는 화가예요. 그저 그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의 ‘액면’은 썩 보잘것없다. ‘드림 페인터’란 직업이 있다고 하나 돈을 받고 그려준 적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으니 백수에 가깝다. 경기 남양주시의 조그만 연립주택에 세 들어 사는 처지에 부인과 여섯 살짜리 딸을 둔 가장. 통속적인 가치로 따지면 그는 남의 꿈까지 들먹일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하지만 미소는 빛났다. 속도 편해 보였다. 그 자신의 꿈 얘기부터 들어봐야 했다.



박종신 씨는 글로벌 MC를 꿈꾸는 이에게 오프라 윈프리, 데이비드 레터먼 등 세계적 MC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림을 그려주었다.

박 씨의 어릴 적 꿈은 만화가나 화가였다. 만화, 상상화 등을 그리기 좋아했던 터라 예술고에 들어가 미술을 전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 꿈은 현실을 이기지 못했다. “예술가는 밥벌이가 힘들다”는 부모의 설득에 1991년 경성대 일어일문학과에 들어갔다.

우회로, 아니 엉뚱한 이정표를 따라가서 그랬을까. 마음 한 구석이 늘 허전했다. 허전함을 달래고자 그림을 꾸준히 그렸고, 그 솜씨가 알려져 일본어 교재를 집필하는 교수의 부탁으로 삽화를 그렸다. 비슷한 업종이다 싶어 1997년 대학 졸업 후엔 1년간 컴퓨터그래픽과 웹 디자인 공부도 했다. 덕분에 출판사에 취직했는데, 그림은커녕 방문교육사원, 실내디자인, 온라인비즈니스마케팅 등 다른 일만 했다. 여러 직장을 전전하는 사이 그림에 대한 미련만 더 커졌다. 꿈은 어느새 저만치 물러나 있었다.

“서른일곱에 시작한 나의 꿈… 첫 작품도 저를 그렸죠”

고민이 깊어가던 지난해 9월 친한 회사 동료가 답을 줬다. “너처럼 확실한 꿈이 있으면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해보겠다. 뒷일이 두려워 못한다면 의지가 없는 거지”라고. 박 씨는 용기를 얻고 가족을 설득했다.

그간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가야 했지만 부인 이학선(36) 씨는 남편의 완강한 뜻을 거부할 수 없었다. 어릴 적 꿈이 의사였으나 평범한 주부로 사는 부인은 자신은 몰라도 남편의 꿈만큼은 이뤄주고 싶었다. 박 씨의 첫 작품은 한 손엔 지구본을 들고 다른 손엔 붓을 들고 해맑게 웃는 박 씨 자신을 담아냈다.

지인들에게 드림 페인터의 취지를 알렸더니 “굉장히 이색적”이라고 신기해하며 호응했다. 이후 “꿈을 그려달라”는 부탁이 들어와 10명 정도를 그려줬다. 물류 전문가를 꿈꾸는 무역회사 직원에게는 세계지도와 거대한 컨테이너 선박을 배경으로 해상왕 장보고와 나란히 선 모습, 글로벌 MC를 꿈꾸는 이에게는 오프라 윈프리, 데이비드 레터먼, 래리 킹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면 등을 그려주었다.

그의 그림들은 익살맞지만 편한 구석이 있다. 그는 “기회는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라 그림 속 꿈의 한 장면을 보면서 늘 마음속으로 준비하라는 뜻을 그림에 담는다"고 했다.

박 씨는 짧게는 하루 꼬박, 길게는 일주일도 넘게 걸리는 고된 작업을 하면서도 마냥 행복했다.

"그림을 그려줌으로써 제 꿈을 실현하고 상대방과 응원과 격려를 나누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드림 메이트'(Dream Mate)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그는 "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아쉬워했다. 꿈을 물어보면 십중팔구는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등바등 먹고살기 바쁜 현실에 치여 사람들은 상상을 펼칠 머릿속에서조차 꿈을 지운다고 했다.

박 씨는 특히 꿈 없는 청소년들이 많은 현실을 개탄했다. 대학 입시와 진학에만 매몰되는 교육제도 탓에 주위를 돌아보고 여유롭게 생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

"저도 30대 초반에 꿈을 찾았어요. 10년 정도만 빨랐어도 현재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겠죠. 꿈은 미래의 자화상인데 젊은이들이 '글쎄요…'라며 주저할 땐 정말 안타깝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 1월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한 시대를 살며 꿈을 실현한 위인 1백명을 그리는 '백인몽(百人夢) SEASON 1'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인도의 독립을 바랐던 간디, 세계 최초로 대서양 횡단비행을 했던 여류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 백범 김구 선생 등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위인들의 노력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꿈을 이루도록 그들의 삶을 반추해보자는 게 취지다. 지금까지 20여 명을 그렸고, 1백명이 완성되면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일반인 1백명을 그리는 '백인몽(百人夢) SEASON 2'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종신 씨는 "다른 사람들의 꿈을 그려주면서 내 꿈도 실현할 수 있어 좋다"며 "이들과 드림 메이트가 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꿈 없는 사람들 안타까워… '백인몽 프로젝트' 시작

박 씨에게도 현실은 팍팍하다. "꿈을 돈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꺼려져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준 적이 없다"고 하니 생계는 웹디자인 등 부업으로 꾸릴 수밖에 없다. 꿈은 이뤘으되 드림 페인터가 온전한 직업이 되지는 못하는 현실에 부딪힌 것이다. 그래도 그는 "쉽게 포기할 거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며 웃었다.

꿈은 꿀수록 커지는 법이다. 드림 페인터로서 1차적인 꿈을 실현한 그는 앞으로 1만명의 꿈을 그리고 묘비에 '그와 함께한 꿈은 이루어졌다'는 글귀를 남기는 게 마지막 꿈이다. "대충 계산해보니 하루에 한 명만 그려도 30년 가까이 걸리던데, 과연 죽기 전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라며 그가 또 웃었다.

서너 평 남짓한 그의 작업실엔 수많은 이들의 꿈이 웃고 있다. 지금은 "파일럿이 되고 싶다"며 눈을 반짝이던 한 공무원의 꿈을 그리고 있다. 그는 "그분이 꿈을 말하면서 정말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나도 덩달아 힘이 났다"고 했다. 만약 한동안 잊었던 꿈이 떠올랐다면 드림 페인터 박종신 씨의 홈페이지(dreampainter.co.kr)로 들어가보는 건 어떨까. G

글 · 박민식(한국일보 사회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야구·축구·배구… '그린스포츠'가 떴다

그린존·경기시간 단축·LED조명·12초 내 투구 등 경기장에 에너지 절약 바람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스의 간판타자 박한이. 그가 타석에 들어설 때면 심판과 상대팀 투수, 포수는 한없는 '기다림의 미학'에 빠져든다. 그의 타격 준비 동작이 무척이나 길기 때문이다. 골프로 따지면 '프리 샷 루틴(Pre-shot Routine·스윙을 하기 전 준비동작)'에 세월 가는 줄 모른다는 얘기다.

야구계에선 박한이의 타격 준비 동작을 이른바 '박한이표 5종 딜레이(Delay) 세트'라 일컫는다. 상대 투수와 포수는 이미 '인 플레이(In Play)' 준비를 끝냈지만, 박한이는 ①타석 밖에서 장갑을 조이는 밴드를 뗐다 붙였다 하면서 ②낮은 점프를 두서너 번 하고 여유 있게 타석에 들어선다. ③이어 허리를 굽히고 헬멧을 벗어 얼굴을 가린 뒤 헬멧 안쪽 면으로 앞머리를 뒤로 넘기는 동작을 반복한다. ④그리고는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가며 땅을 고른다. ⑤마지막으로 배트 헤드로 홈플레이트 끝을 톡톡 때린 뒤 그 주변으로 사각형 선을 그린 다음에야 타격 자세로 돌입한다. 이 사이 수십 초의 시간이 흐른다. 이쯤 되면 상대 투수, 포수나 심판은 김이 빠진다.



조영철 기자

녹색의 물결이 프로야구 개막전 경기장을 수놓았다.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그린스포츠 홍보 응원도구로 열띤 응원을 펼치는 SK 홈 관객들.



조영철 기자

SK구단은 관객들의 녹색문화 실천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 문학야구장 외야석에 '그린존'을 지정하고 그 존 내에서 홈런 공을 잡는 관객에게 친환경 제품을 증정한다.



일러스트 · 남동윤

'프로야구장 이렇게 바뀐다.' 올 시즌 프로야구장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선수, 심판, 구단이 적극적으로 경기 시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전개한다.

그러나 올 시즌부터 프로야구장에서 박한이의 이런 '의식(儀式)'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 시즌까지는 이런 습관을 제약할 방법이 없었으나 올 시즌부터 경기시간 단축을 위한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기 때문. 특히 투수의 12초 내 투구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돼 박한이는 기존 타격 준비 동작을 간결하게 바꿨다.

경기의 박진감을 높인다는 차원을 떠나 시즌 대부분을 야간경기로 치르는 프로야구가 경기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야구 외적으로 볼 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몸부림이라 봐도 좋다.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전도사로 나선 것이다.

KBO, 에너지관리공단과 '그린스포츠' 업무협약

지난 2월 녹색실천을 위한 '그린스포츠' 업무협약을 맺은 에너지관리공단과 KBO(한국야구위원회)는 3월 27일 SK와 한화의 프로야구 개막전에 앞서 그린스포츠 선포식을 열었다.

올 시즌 프로야구장에서 전개될 그린스포츠 주요 실천 내용은



'천하무적 야구단' 개그맨 한민관이 3월 27일 SK와 한화의 개막전에 앞서 자전거 퍼레이드에 나섰다. 이 행사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야구장에 가자는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경기시간 단축 등을 통한 녹색경기 유도 △태양광 발전설비 및 LED 조명 설치 등 녹색구장 조성 △녹색생활 실천 홍보 등이다.

먼저 경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2초 내 투구' 외에도 5회 말 종료 후에 있던 5분간의 클리닝타임이 폐지됐다. 운동장 정리는 3, 5, 7회 종료 후 간단하게 진행한다. 또한 입장료 수입 일부를 그린펀드로 조성해 '야구인의 숲' 조성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5월 중엔 '그린위크(Week)'를 지정해 이 기간 중 홈런, 승, 세이브 등을 기록한 선수가 기념식수를 하고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이벤트도 추진한다. SK 홈인 문학야구장 외야석에는 '그린존(Zone)'을 지정해 구역 내에서 홈런공을 잡는 관객에게 자전거 등 친환경 제품을 증정한다.

그린야구장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된다. 특히 정부와 구단들의 예산 지원을 통해 서울 잠실, 대전, 부산 사직, 인천 문학구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들어서고, 조명도 LED로 교체된다.

인천 문학구장에는 4백56킬로와트, 잠실구장엔 1백 킬로와트, 대전과 부산엔 70.2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새로 설치된다. 부산구장에는 그린에너지 체험 홍보관도 건립된다. SK구단도 올해 문학구장 안에 신재생에너지 체험관을 설치해 관람객 교육과 홍보의 장(場)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전기를 사용하는 불펜카와 셔틀 차량을 운행해 경기장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앞장선다.

축구·야구 등 녹색구장 조성 캠페인도

올해 프로야구 구장에선 연중 '그린캠페인'도 전개된다. SK와 한화의 개막전에서 열린 그린스포츠 선언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 구장에선 인기가수가 부르는 그린스포츠 CM송을 전광판 및 구단 응원가와 반복해 틀어준다. 이에 더해 KBO는 구단별 대표 선수들이 출연하는 TV광고를 제작해 그린캠페인에 대한 국민 호응도를 높이며, 각 구장별로 재활용 및 분리수거함을 비치해 관객들이 녹색문화활동을 야구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또한 민간단체 등과 연계해 관람객 입·퇴장 시 대중교통 이용 및 전기 절약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하며, 경기 중에도 구장 내 에너지 절약 유도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수시로 전달할 예정이다. SK구단은 구단 서포터스와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그린봉사대를 발족해 운영하면서 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그린스포츠가 전국적으로 잘 실천될 경우 일반 가정 4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에너지 사용량(50만 티오이 · 1toe=석유 1톤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을 절감할 수 있고, 1천5백37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화탄소 저감 추정량은 2년생 소나무 묘목 1만3천8백 그루가 내는 식목 효과와 맞먹는다.

조영철 기자





동아DB

▲올 시즌 전국 프로야구 경기장에선 관람객을 대상으로 그린스포츠 실천 참여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3월 26일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와 프로스포츠 5개 단체가 녹색생활 실천문화 확산과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스포츠'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그린스포츠를 실천할 예정이다. 환경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녹색생활 실천 Me First'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야구위원회를 포함한 프로스포츠 5개 단체(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와 3월 26일 그린스포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축구, 농구, 배구 경기장에서도 녹색구장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전개된다. 자전거 등을 이용한 고객에겐 경기 관람료를 할인해주고, 경기시간 단축에 기여한 선수를 '그린플레이어'로 선정하는 등 그린스포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갖가지 방안들이 선을 보인다. 기후변화 주간(4월 19~25일)의 일요일(25일)은 '그린스포츠-Day'로 선포해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벌인다.

환경부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객과 선수 및 심판, 구단 운영진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실천을 위한 'Me First' 수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객들의 대중교통 이용 및 일회용품 자제, 선수 및 심판들의 경기시간 단축 노력, 운영진의 에너지 절약과 쓰레기 배출 최소화 등을 당부했다.

야구장 이외의 경기장 온실가스 배출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관객 수가 많은 야구장은 쓰레기 배출량이 많지만, 경기장 면적이 큰 축구경기장은 전력 소비량이 높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개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7만5천5백98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환경부는 Me first 수칙과 가이드라인을 이행할 경우 연간 1만5천1백84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고효율 조명, 경기장 시설 개선 5천4백94톤, 관객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쓰레기 배출 저감 협조 9천6백90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G

글 · 유재영 기자

온실가스 감축 실천 수칙 및 가이드라인

●관객 'Me first' 수칙

경기장 갈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
음식물 용기, 컵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
일회용 응원도구 사용 자제하고, 재사용 가능 응원도구 사용하기
물 낭비 최소화하기
경기 관람 후 '클린타임'을 준수하고 쓰레기는 분리 배출하기

●선수 및 심판 'Me first' 수칙

경기 시작 전 선수, 심판 대기실 소등 및 냉난방기 절전
빠른 공수 전환으로 경기시간 단축
투구 간격 줄이기(야구)
경기 후 샤워시간 1분 단축하기

●운영진(구단) 'Me first' 수칙

'Me first' 수칙을 관객, 선수, 심판에게 홍보
경기 관람 후 클린타임 실천을 위한 홍보
물 및 전기 절약과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포스터, 현수막 사용 줄이고 문자 및 온라인을 이용한 홍보하기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한 응원도구 이용한 응원방식 전파

●온실가스 감축 가이드라인

태양광 시설 설치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빛의 반사나 투과가 좋은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
건물의 벽, 지붕, 출입구 등의 단열 시공을 통해 실내 온도 유지
송수관 및 공조기 청소 및 유지 보수로 난방 효율 증대
조명의 인지 감지 센서 제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절수형 기기 설치 운영
공조 팬의 가변풍량화를 통한 전력소비 감소
고효율 변압기 변경으로 전기 손실 예방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지하저류조 설치 운영으로 수도 사용량 절약
화학비료 사용 줄이고 퇴비 사용 늘림
조명기구의 정기적인 청소
온수 출구온도 변경으로 에너지 절약
급기팬의 인버터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야구로 대한민국을 전합니다”

야구해설가 허구연, 캄보디아에 ‘베이스볼 필드’ 기증

1인당 국민소득이 7백 달러 수준에 불과한 동남아의 가난한 국가 캄보디아에 한국인에 의해 야구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서남쪽으로 50킬로미터 떨어진 캄퐁스포 지역의 스랑 마을에서는 ‘허구연 베이스볼 필드’ 개장식이 열렸다.

유명 야구해설가인 허구연(59) 씨가 1억원의 기금을 내놓아 3년 만에 완공된 ‘허구연 필드’는 국내 야구장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좌우 펜스까지의 거리가 92미터, 중앙 펜스까지는 1백13미터로 국제 규격을 겨우 충족시키긴 했지만 국내 구장들보다는 작다. 게다가 내·외야에는 모래와 잔돌도 많다. ‘맨땅’을 간신히 면한 수준이다. 번듯한 전광판도 없지만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주변 마을 수준을 감안하면 미국 메이저리그 구장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래도 선수 숙소와 실내 연습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향후 한국 초중고교팀의 전지훈련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허 씨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남을 돕는 나라가 된 세계 최초의 국가인 한국이 이제 야구 실력도 세계 정상급에 오른 만큼 야구를 통한 제3세계 지원에 관심을 가질 때”라고 말했다. “우리가 1백 년 전 한국에 야구를 전한 질레트를 기억하듯 캄보디아 사람들도 장차 한국을 기억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것.

허 씨가 광고 모델료로 받은 5천만원까지 더해 그 기금으로 야구장이 지어지기는 했지만 캄보디아에 먼저 야구의 씨앗을 뿌린 사람은 김길현(55) 전 이화여대 약학대 교수다. 김 교수는 2006년 캄보디아 최고의 명문 대학 프놈펜 왕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대학에 캄보디아 최초의 야구팀을 창단해 화제가 됐다.

첫 야구단 창설 김길현 교수 뒤이어 ‘야구 전파’

대학 시절 아마추어 야구 선수로 활동했던 김 교수는 야구를 통해 캄보디아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다. 김 교수는 “캄보디아는 1970년대 중반 폴 포트 정권의 학살로 많은 지식인들이 목숨을 잃어 문맹률이 50~60퍼센트에 달할 만큼 교육수준이 낮다”며 “야구를 통해 규칙을 지키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야구는 2006년 연맹이 설립됐을 정도로 걸음마 수준이다. 성인 팀은 단 2개뿐이다. 그러나 최근 2년 사이 20여 개리틀 야구팀이 생겨나는 등 야구 열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캄보디아 야구연맹 티어리 채 사무총장은 “한국 야구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지난해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준우승한 것도 알고 있다”며 “이번에 ‘허구연 필드’를 만든 소식을 듣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야구장 이용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국가대표팀 에이스인 무앙 짱토언(22) 씨는 “우리도 번듯한 야구장을 갖게 됐으니 동남아(SEA) 대회에서 첫 승은 물론 메달 획득도 노려볼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다. G

글 · 고석태(조선일보 스포츠레저부 차장)



캄보디아 선수들과 함께 포즈를 취한 김길현 교수(왼쪽)와 허구연 씨.

수수·기장이 최고 건강식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잡곡 항당뇨·항암효과 탁월"



동아DB

콩, 팥, 수수, 기장 등 잡곡이 당뇨나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흰 쌀밥에 고기반찬을 최고의 식단으로 여겼다. 당시에는 쌀겨는 물론이고 씨눈까지 깨끗이 없앤 백미가 쌀 중의 으뜸이었다. 반면에 쌀의 씨눈을 도정하지 않은 현미는 먹기가 껄끄럽고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천대를 받았다. 콩, 팥, 수수 같은 잡곡도 대접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 이러한 잡곡은 비싼 백미로만 밥을 지을 형편이 못 되는 가정에서 쌀과 섞어 쓰던 대체식량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대세가 역전됐다. 현대인들은 순백의 쌀밥보다 누런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선호한다. 쌀의 씨눈에 각기병을 예방하는 티아민(비타민 B1)이 다량 함유돼 있을 뿐 아니라 잡곡이 백미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이 최근 1년여 동안 수행해 지난 2월 23일 발표한 '잡곡연구 프로젝트'는 혈당 상승 저해율이 잡곡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가학적인 데이터를 담고 있다.

잡곡을 활용해 다양한 기능성 농식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농촌진흥청이 구성한 공동연구 프로젝트팀에서 조, 기장, 수수, 팥, 식용피 등의 잡곡이 항당뇨, 항암, 항염증, 항산화 활성 등 건강 기능성이 높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그중에서도 수수와 기장의 기능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판명됐다.

먼저 혈당 상승을 막는 항당뇨 활성효과는 조, 기장, 수수, 식용피 등 대부분의 잡곡에서 나타났다. 특히 수수와 기장의 경우 5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수수와 기장은 항암효과도 뛰어났다. 수수와 기장의 추출물을 암세포에 처리한 결과, 암세포 사멸률이 각각 77.7퍼센트, 64.1퍼센트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상세포에 처리했을 때는 세포 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암세포에만 작용하는 특이 효과임이 확인됐다.

조·기장 등 항산화 활성 수치 토코페롤보다 높아

세균이 유발하는 염증에 대해서는 조, 기장, 수수, 팥 등이 40~97퍼센트까지 억제효과가 있었다. 이 가운데서도 기장이 97.3퍼센트, 수수가 88.5퍼센트로 높은 항염증 활성을 보였고 세포 독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양한 분석 방법으로 잡곡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했더니 수수와 식용피의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진 토코페롤보다 월등한 효과를 나타냈다. 항산화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총 폴리페놀 함량은 수수가 흑미보다 2배가량 많았다. 수수에는 항산화물질을 포함한 19종의 폴리페놀 화합물도 들어 있었다. 이 밖에 식용피, 팥, 조, 기장의 경우도 항산화 활성이 있는 잡곡으로 평가됐다.

농촌진흥청 기능성작물부 이학동 부장은 "잡곡의 건강 기능 성분에 대한 활성 평가를 동물시험까지 확대해 안전성을 검토한 후 기능성 농식품과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기능성 농식품 산업은 앞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민 건강 개선에 기여할 신성장산업"이라고 강조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엄마, 나도 전원학교 갈래요"

1393억 지원… 농산어촌 초중교 확 바뀐다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가 됐어요"

경기 용인시의 농촌 마을에 위치한 한터초등학교. 이 작은 초등학교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가까운 이웃 동네는 물론 멀리 서울에서까지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며 30여 명이 전학 왔기 때문이다. 그 계기는 지난해 7월 '농산어촌 전원학교'로 선정된 것. 전교생이 3백명 남짓한 작은 학교지만 전원학교가 되면서 이 학교는 다른 초등학교와 달리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로 학생들과 학부모를 감동시켰다.

'인라인 스케이트·골프 수업' '농작물 재배 실습지 수업' '건강 슬림학교' '원어민 영어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이끌어줬고 전자칠판, 학생 개인용 단말기(태블릿PC) 등 최첨단 교육시설 환경을 구축해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끌어올렸다. 한터초등학교 이춘구 교육연구부장은 "앞으로 전원학교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미래형 전원학교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한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태블릿PC와 전자칠판을 이용해 공부하고 있다. 전원학교의 첨단 교육시설 덕분에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높아졌다.

지난해 7월, 농산어촌 지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전원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존폐 위기에 놓인 이들 학교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어촌의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전원학교는 농산어촌의 자연친화적인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래형 학교. 면 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77개교, 중학교 33개교 등 총 1백10개교가 지난 여름 전원학교로 변모했다. 정부는 첨단 교육시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3년간 총 1천3백9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지난해는 7백90억원을 지원했다.

아직 전원학교로 옷을 갈아입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한터초등학교처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최첨단 교육시설을 겸비한 미래형 학교로서 전원학교에 대한 관심은 여간 크지 않다. 이에 3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교는 전원학교로, 고등학교는 기숙형 고교 육성사업으로 체계화해 농산어촌의 '고품질 통합교육' 지원을 가능하게 한 것. 지난해 7월 마련된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농산어촌 학교 육성사업이 접목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1백10곳인 전원학교는 2012년까지 3백 곳으로 늘어난다. 오는 5월 중 전원학교로 전환될 학교들을 최종 선정할 계획. 전원학교는 면 지역에 소재하고 학생 수가 61~2백명인 통폐합 본교 혹은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전원학교의 첨단 교육시설 지원과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도 확충된다. 전원학교로 지정되면 전원학교 전환에 따른 지원금 10억~20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다음 해부터 3년간 추가 사업비 3천만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지원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및 지역학교와 연계협력하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역내 상급 우수학교로의 진학·진로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계획이다.

고등학교는 기숙형 고교로… 전원학교와 연계 모색

또한 단지 초중학교 과정에 그치지 않고 고등학교와 연계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정된 1백50곳의 기숙형 고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학교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원학교와 기숙형 고교를 연계함으로써 그동안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고교 진학을 위해 도시로 떠나야 했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전우홍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전원학교를 확대해 농산어촌 지역의 초중학생들이 우수한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이 학생들이 해당 지역의 기숙형 고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것까지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동아DB

제12회 함평 나비축제에선 어린이들을 위한 나비 생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올핸 꼭 나비축제 보러 가야지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 4월 23일 막 올려

'나비' 하면 전남 함평이다.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가다 함평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나비 세상이 펼쳐진다.

2008년 세계 나비 엑스포가 열린 곳도, 그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2천8마리의 나비가 날려진 곳도 함평이다. 이처럼 나비가 지역의 자랑거리가 된 고장 함평에서 올해 12회째를 맞는 나비 대축제가 열린다.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열리는 축제에선 각종 나비 전시와 체험 행사가 마련된다. 올해 축제의 대표 나비는 '산호랑나비'다. 날개의 황색이 진하고 앞날개 윗면 중앙에 검은색 점이 많다.

함평은 이렇다 할 관광자원이 없고, 특산품과 먹을거리도 빈약해 관광산업 분야에선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던 지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함평군은 1998년부터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만 서식하는 나비 농사를 주력 사업으로 삼았다.

함평군은 '나비=친환경'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축제를 기획했다. 이 중심엔 '나비 박사'인 정헌천 박사의 공이 크다. 나비가 좋아 전국을 떠돌다 1998년 함평군청 곤충연구소장으로 임용된 정 박사는 토종 나비를 인공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지역 농민들에 전수하고 나비 축제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자연을 그대로 가져다 축제를 열자는 기획은 대성공. 나비 축제는 함평 지역뿐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 축제로 성장했다. 지난해의 11회 축제까지 3천억원에 육박하는 직간접적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인구가 4만명밖에 안 되는 함평군을 국내 최고의 생태 관광지로 이끈 공로로 정 박사는 2006년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에서 지역혁신 우수 리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원래 나비 축제 기획안은 함평군으로 오기 전 이미 몇몇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퇴짜'를 맞았는데, 함평 나비 축제가 히트를 치자 그때 냉소하던 지자체들이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이후에도 함평 나비 축제는 성공적인 축제로 운영돼 2010년 문화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나비=희망' 생태관 전시 프로그램 강화

'나비=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행사 기간 중 5월 5일 어린이날이 끼어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한 나비 생태관 전시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했다. 호랑나비 등 12종이 알에서 애벌레, 성충을 거쳐 탄생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탄생관을 마련했고, 산호랑나비 외 10종의 애벌레 생태도 전시된다. 각국 곤충학회에서 제공된 세계 희귀 나비들도 볼 수 있다.

나비와 어울리는 다양한 야생화 등의 생태도 조성됐다. 이와 함께 국내외 나비 및 곤충 표본 4백50종 7천 마리도 전시하며, 나비 화석도 볼 수 있다. 나비를 직접 만져보면서 종을 확인하고 날려볼 수 있는 체험행사도 열린다. G 글·유재영 기자

함평군청 문화관광과 Tel 061-320-3733

눈물의 섬, 沁都 역사의 향취에 푹

〈심도 : 강화의 옛이름〉

우리나라에서 강화도만큼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은 고장도 흔치 않다. 고려와 조선의 도읍이던 개경과 한양의 길목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탓이다. 또한 염하(鹽河)라는 천혜의 자연방어선과 드넓은 농토를 갖고 있어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수십 년간이나 항쟁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염하를 건너온 적들에게 강화성이 함락될 때마다 살육과 약탈의 광풍이 온 섬을 휩쓸었고, 종국에는 무인지경의 폐허로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고난의 역사를 겪었기에 지금도 강화도를 가리켜 '역사의 땅, 눈물의 섬'이라 일컫는 것이다.

역사의 땅인 강화도의 구석구석을 도보로 둘러볼 수 있는 길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시범사업 구간 중 하나로 선정된 강화 나들길은 현재 7개 구간(총길이 1백17킬로미터)이 개발됐다. 그중 코스 정비가 마무리되어 외지 여행객들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곳은 1~5구간이다. 제6구간(갯벌센터 가는 길)과 제7구간(화남생가 가는 길)도 조만간 정비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필자는 지난해 봄에 제2구간(호국 돈대 길), 가을에는 제1구간(심도 역사문화 길)을 섭렵했다. 강화 나들길의 아름다운 풍



강화 나들길 제1구간인 강화산성 북문 근처의 성벽을 따라 걷는 여행. 봄 기운이 물씬하다.

광과 다양한 역사유적에 매료된 필자는 최근 제1구간을 다시 걸었다. 강화읍내 용흥궁공원을 출발해 강화산성 북문, 연미정 등을 거쳐 갑곶의 강화역사관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이 길에서는 고려의 임시수도였던 강화도의 특별한 역사와 그윽한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총 7개 구간 중 5개 코스 정비 마쳐

심도(沁都)는 강화의 옛 이름이다. 심도 역사문화 길이 시작되는 용흥궁공원 주변에는 용흥궁, 성공회 강화성당, 고려궁지 등의 내력 깊은 문화유적들이 남아 있다. 용흥궁은 강화도령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열아홉 살 때까지 살던 집이다. 원래는 초가였으나 철종이 즉위한 뒤에 강화유수가 기와집으로 고쳐 짓고 용흥궁이라 명명했다.

'궁'이라 불리기에 민망할 정도로 작고 소박한 용흥궁 뒤편에는 백두산 나무로 지었다는 성공회 강화성당(사적 제424호)이 우뚝하다. 전체적으로 배 모양을 띠는 이 건물은 조선의 전



강화도령 철종의 생가인 용흥궁 뒤란에 산수유꽃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통한옥에 서양의 기독교식 건축양식을 절충해서 지어졌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영락없는 절간이지만, 내부에는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의 예배 공간을 갖췄다. 초창기 선교사들의 세심한 배려와 토착화 노력이 엿보이는 건물이다. 용흥궁공원 바로 위쪽에는 고려의 궁궐이 자리했던 고려궁지가 있다. 고려 고종 때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뒤 39년 동안 사용한 궁궐과 관아가 들어섰던 공간이다. 하지만 지금은 터만 남았다.

"무념무상으로 하염없이 걷노라면 어느새 둥그런 성곽이 둘러쳐진 언덕 아래에 닿는다. 그 성곽 안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돈대가 보인다. 이 작은 돈대 안에 연미정(燕尾亭)이 있다. 서해로 흘러드는 한강과 염하의 물길 형상이 제비꼬리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강화산성 북문으로 오르는 길의 화사한 벚꽃터널.



고려궁지를 나와 강화산성의 북문으로 가는 길 양쪽에는 벚나무가 줄지어 늘어서 있다. 해마다 4월 중순이 되면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려 눈부신 벚꽃터널을 이루곤 한다. 이따금씩 부는 봄바람에 꽃잎이 우수수 흩날리면 아득한 현기증마저 느껴질 만큼 황홀한 봄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벚나무 가로수길을 10여 분쯤 오르면 강화산성의 북문인 진송루 앞에 당도한다.

몽골군의 침입에 대비해 토성으로 처음 쌓았다는 강화성은 몽골의 강요로 헐리기도 했다. 그러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여러 차례의 개축과 보수공사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석성이 남았다. 북문 부근의 성벽 위에서는 한강 하구 건너편의 북녘 땅이 또렷하게 보인다. 그래서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의 발걸음이 잦다.

강화산성의 성벽 길을 내려서면 아늑한 숲에 들어선다. 강화읍내에서 멀지 않은 숲인데도 호젓하고 한가롭다. 조붓한 숲길을 십여 분쯤 걸으면 오읍약수터가 나온다. 길을 걷는 이에게 약수터만큼 반가운 것이 없다. 시원한 물 한 모금에 목을 축인 뒤 길을 재촉하니 금세 마을길로 접어든다. 마을과 들녘으로 이어지는 나들길의 풍경과 정취는 정겹지만, 끝 모를 시멘트 도로와 아스팔트 도로는 여행자의 발길을 더디게 만든다.

무념무상으로 하염없이 마을길을 걷노라면 어느새 둥그런 성곽이 둘러쳐진 언덕 아래에 닿는다. 그 성곽 안 언덕 위에 우뚝 솟은 돈대가 보인다. 이 작은 돈대 안에 연미정(燕尾亭)이 있다. 서해로 흘러드는 한강과 염하의 물길 형상이 제비꼬리 같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고려 고종 때 처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연미정은 정묘호란 당시 강화로 피난 온 인조가 청나라와 굴욕적인 형제관계의 강화조약을 맺은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1구간 여행… 봄바람 살랑대는 지금이 딱 적기

연미정은 언제나 시원스럽다. 유난히 드세다는 강바람과 바닷바람도 시원스럽고, 강화 10경의 하나라는 연미정의 바다 풍경도 가슴을 뻥 뚫리게 한다. 뻘물과 강물이 뒤섞여 도도히 흐르는 한강 하구의 저편에는 북녘 땅의 산하가 손에 잡힐 듯 또렷하다.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만한 거리인데도 심리적인 거리는 천리 길보다 더 아득하다.

연미정에서 제1구간의 종점인 갑곶의 강화역사관(032-930-7077)에 이르는 길은 변화가 별로 없고 밋밋해서 다소 지루하다. 한강 하구와 염하 해안에 설치된 철책을 따라가기도 하고, 내처럼 흐르는 수로와 나란히 이어지기도 한다. 게다가 그늘이 없어서 햇살 따가운 여름철에는 적잖이 고생스러울 성싶다. 그러므로 강화 나들길의 제1구간은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이맘때쯤에 딱 걷기 좋다. 도시의 골목길, 숲길, 성벽 길, 마을 고샅길, 들길과 물길 등을 두루 거쳐 가는 이 길은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인 강화도의 역사를 닮은 듯하다. 그 길에서 강화도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G 글과 사진 · 양영훈(여행작가)

여행 정보

코스 정보

▶ **제1구간(심도 역사문화 길)** | 17킬로미터, 5~6시간 소요. 강화읍내 용흥궁공원→용흥궁→성공회 강화성당→고려궁지→강화산성 북문→북장대→오읍약수터→연미정→강화역사관

▶ **제2구간(호국 돈대 길)** | 15.4킬로미터, 5시간 30분 소요. 강화역사관→용진진→화도돈대→오두돈대→광성보→덕진진→초지진

▶ **제3구간(능묘 가는 길)** | 16킬로미터, 6시간 소요. 온수사거리→전등사→삼랑성→우일각→온수리 성공회성당→길정저수지→곤릉→석릉→가릉

▶ **제4구간(해가 지는 마을 길)** | 8.7킬로미터, 2시간 30분~3시간 소요. 가릉→정제두묘→하우약수터→이건창묘→건평나루→건평쉼터→건평돈대→외포리 선착장→망양돈대→외포리터미널

▶ **제5구간(고비고개 길)** | 17.6킬로미터, 6~7시간 소요. 강화 시외버스터미널→남문→국화저수지→내가지석묘→덕산산림욕장→외포리 고창굿 당집→외포리 선착장

전화 | 강화군 관광개발사업소(032-930-4331), 강화시민연대(032-933-6223)

숙박

강화도는 섬 전체가 거대한 펜션타운이다. 추천할 만한 펜션으로는 화도면 사기리의 '게스트하우스 무무'(010-7180-9065), 화도면 여차리의 일마레펜션(032-937-6242), 화도면 장화리의 낙조테마펜션(032-937-4077), 석모도의 '추억 속으로'(032-932-8180)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밖에 길상면 선두리의 강화로얄관광호텔(032-427-2000), 길상면 초지대교 부근의 쉘모텔(032-937-8235), 화도면 내리의 에쿠스모텔(032-937-9682)은 비교적 깔끔하다.

맛집



제1구간의 경유지 중 하나인 고려궁지 앞에 위치한 왕자정(032-933-7807)은 묵밥과 두부요리를 잘하는 집이다.

그리고 강화읍내 중앙시장 내에 위치한 우리옥(032-932-2427)은 강화에서 가장 내력 깊고 손맛 좋은 백반집으로 유명하다.

강화풍물시장 2층에 자리 잡은 옛날집순대(032-934-9449)에서는 직접 만든 옛날순대와 강화도의 별미인 밴댕이회를 비교적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그 밖에 강화읍 선문리의 신아리랑집(젓국갈비·032-933-2025), 선원면 신정리의 별미정(장어구이·032-932-1371), 길상면 초지리의 대선정(시래기밥과 메밀칼싹둑이·032-937-1907) 등도 강화의 맛집으로 손꼽힌다.

가는 길

승용차 | 서울외곽순환고속국도 김포나들목(48번 국도·강화 방면)→강화대교→강화읍→용흥궁공원

대중교통 | 서울 신촌로터리 부근의 신촌시외버스터미널(02-324-0611)에서는 강화행 시외버스가 10여 분 간격으로 출발한다(05:40~23:20). 강화터미널까지는 약 1시간 10분 소요.

강화도의 관문이었던 갑곶의 갑곶돈대.



조선 숙종 37년(1711년)에 주조된 강화동종(銅鐘)



한강 하구의 나직한 언덕에 자리 잡은 연미정. 북녘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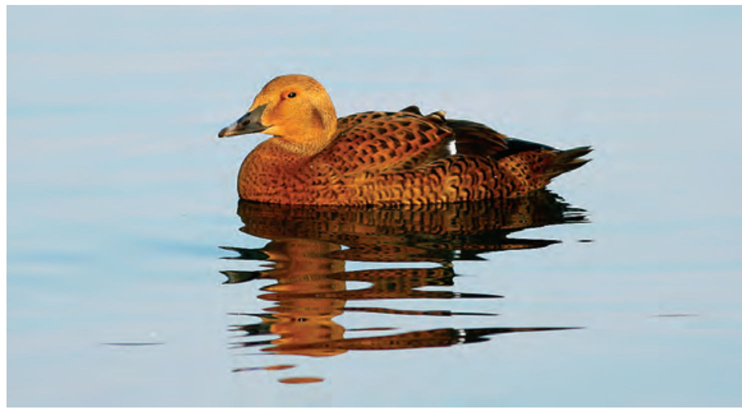

4대강 살리기
제 47 화
섬진강 서시천
글 · 이연수 그림 · 이호
수달
식육목 족제비과
학명 : Lutra lutra
루트라 루트라
천연기념물 제330호
부르르
자기 또 물 안에서
볼일 봐부렀냐!
화들짝
우리 응가와 쉬야에 들어 있는 질소와 인산이 강물의 부영양화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나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냐!
1kg의 질소가 110kg의 녹조류를 생성한단 말이여.
그러니 되도록 볼일은 육지에서 보자고.
이젠 그런 수고 필요 없당께.
뭐땜에?
이번 4대강살리기에 하수처리시설 750개와 고도처리시설 398개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못 들었냐?
고도처리시설?
그것이 뭣이다냐?
아, 하수에서 질소와 인산을 제거해주는 처리시설 아직도 몰라야?
워메, 그걸 398개나 만든다고야?
암만! 앞으로는 갈수기에도 녹조현상 걱정 없다, 이거제.
으쓱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뿡뿡 싸야 쓰겄냐? 우리 같은 청정동물들이 모범을 보여야제!
아따~ 말로 하장께!





우리를 지켜주세요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특별전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다양성의 해를 맞이해 그동안 발견한 9종의 생물 표본을 공개했다.
2008년 발견된 미나리과 세잎개발나물, 목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는 주홍털구름버섯, 북극 대륙에서 번식한다는 호사북방오리(사진 왼쪽부터).

환경오염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생물들이 늘어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존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 유엔은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지정했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가진 유전자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칭한다.

생물의 멸종은 무분별한 개발, 서식지 파괴, 생물 남획 등 인간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다양성 파괴가 1천 배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 따르면 포유류의 21퍼센트, 조류의 12퍼센트가 멸종위기에 처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일과 다름없다. 다양한 생물이 존재하면 모두가 숨 쉬고 살아가는 최적의 생태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식량과 의약재료 등 필요한 자원도 공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서식지 보호구역과 2백21종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생물자원 마스터플랜 수립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립생물자원관 등 생물다양성 보전 기관을 확충했다.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자생생물은 약 10만 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중 3만여 종만이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생물자원을 조사 발굴하는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자 40여 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생물다양성의 해인 올해엔 생물다양성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생명’ 특별전을 열고 있다.

올해 ‘생물다양성의 해’ 지정

10월 31일까지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내) 전시교육동 특별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선 2007년 개관 이후 발견한 신종, 미기록종 중 대표적인 세잎개발나물, 주홍털구름버섯, 꿀먹는 기생파리 등 9종의 표본을 공개했다. 슬라이드 표본, 박제 표본 등 그동안 수장하고 있던 다양한 생물 표본도 전시하고 있다.

김종천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보여주는 주요 행사로 국격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뿐 아니라 4대강살리기에서 추진하는 멸종위기종 복원 및 수생태 보전 노력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국립생물자원관 Tel 032-590-7245

박완서 · 양귀자 · 이동하…
자전적 단편들 '눈길'

완연한 봄기운이 다가온 4월이다. 한껏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개나리, 목련 등 봄꽃들이 가득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이 봄을 이렇게 보내는 게 아쉽다. 포근한 봄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면 햇살이 내리쬐는 벤치 아래서 책 한 권을 펼쳐보자. 코끝을 간질이는 꽃향기 속에 어느새 나만의 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달에도 독서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10권의 읽을 만한 책을 선정했다. 이 중 '봄'을 느끼며 읽을 수 있는 책 3권을 골라봤다.

먼저 신경숙 작가가 추천한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월간 '현대문학'이 창간 55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책으로 유명 작가 9인의 자전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특히 올해로 등단 40주년을 맞는 박완서의 표제작, 8년 만에 발표되는 양귀자의 신작 등이 있어 눈길을 끈다. 작가들은 삶과 사랑, 가족 등을 소재로 독자들에게 자신들의 은밀한 이야기를 건넨다. 전쟁 통에 홀로 떨어져 피난 가는 낯선 소년의 모습을 자화상 삼아 담담히 읊조리는 이동하의 '감나무가 있는 풍경',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예술가의 자질을 펼쳐보지 못하고 투신한 천재 오빠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낸 양귀자의 '단절을 잇다' 등 작가들의 삶 속에 비쳐지는 아픔과 고뇌가 살랑거리는 봄바람을 타고 가슴속으로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다.

성악가가 친절히 설명해주는 〈김동규의 오페라 이야기〉

봄의 감성을 더해줄 클래식 음악 관련 책도 호기심을 자아낸다. CBS 라디오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진행하는 성악가 김동규가 라디오 코너 속 '김동규의 오페라 이야기, 이 장면을 아시나요'에서 전한 오페라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오페라의 고전이라 불리는 비제의 '카르멘', 푸치니의 '나비부인' 등 15편의 오페라에 얽힌 이야기를 담았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곡으로 유명한 김동규가 성악가의 시각에서 오페라 무대의 실상과 무대 뒷이야기 등을 입담을 풀어놓듯 엮어 오페라를 잘 모르는 고전음악 초보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봄의 싱그러움을 더하는 자연의 소중함을 이야기해주는 책도 있다. 〈타임〉지가 뽑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인 1백인' 중 한 사람인 랠프 네이더의 〈열일곱 개의 전통〉이다.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소비자·시민운동을 주도해온 저자는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가족과 마을 공동체로부터 배운 17가지 전통을 정리했다. 그는 무엇보다 성장 과정에서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족과 공동체를 둘러싼 자연을 통해 삶의 경이로움을 느꼈고, 이 같은 경험으로 자연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도 배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준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kpec.or.kr



석양을 등에 지고 그림자를 밟다

박완서 · 이동하 외 지음 · 현대문학 펴냄
한국문학 대표 작가 9명이 펴낸 현대문학 창간 55주년 기념 자전 소설집 | **추천** 신경숙(소설가)



나는 노비로소이다

임상혁 지음 · 너머북스 펴냄
1586년 나주 관아의 노비소송을 통해 조선시대 노비제를 살펴본 책 | **추천** 이덕일(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라플라스의 악마, 철학을 묻다

최훈 지음 · 뿌리와이파리 펴냄
철학적 쟁점을 보여주는 1백17가지 사고실험을 통해 철학세계에 입문할 수 있도록 돕는 책 | **추천**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윤리적 소비 – 세상을 바꾸는 착한 거래

박지희 · 김유진 지음 · 메디치미디어 펴냄
공정여행, 공정거래 등 '윤리적 소비'의 이론과 실제를 담은 가이드북 | **추천**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요타의 어둠

MyNewsJapan 신문사 지음 · JPNews 엮음 · 창해 펴냄
일본의 온라인 신문사 〈마이뉴스재팬〉 기자들이 근로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모은 책 | **추천**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과학인문학

김병호 지음 · 글항아리 펴냄
질량, 상수, 시간 등 과학적 기본 개념을 인문학으로 끌어들여 설명한 책 | **추천** 최영주(포스텍 수학과 교수)



이 장면을 아시나요 1, 2

김동규 · 정혜진 지음 · 생각을담는집 펴냄
성악가 김동규가 자신의 라디오 방송 청취자에게 전한 오페라 이야기를 엮은 책 | **추천** 김춘미(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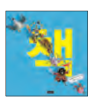
열일곱 개의 전통

랠프 네이더 지음 · 정영목 번역 · 재인 펴냄
미국의 유명 사회 운동가이자 변호사인 저자가 열일곱 개의 소중한 정신적 자산에 대해 이야기한 책 | **추천**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나는 오늘도 사막을 꿈꾼다

김효정 지음 · 일리 펴냄
전 세계 여성 중 세 번째로 사막 레이스 그랜드슬래머가 된 김효정 프로듀서의 사막 마라톤 체험기 | **추천**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책

모디캐이 저스타인 지음 · 신형건 번역 · 푸른책들 펴냄
그림책 속 주인공은 책 안에서 어떤 삶을 살지 상상력을 발휘해 쓴 동화책 | **추천**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이금이(아동문학가)

절망이 희망으로

글과 그림 · 최영순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닫힌 문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또 다른 문을 보지 못한다.
– 헬렌 켈러

이것이 '강수진' 발레다

강수진 갈라 〈더 발레〉

일시 4월 9일 오후 7시 30분, 10~11일 오후 5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VIP석 18만원,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4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1~3급은 동반 1인까지)
문의 02-751-9607 318-4301 www.sac.or.kr



독일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수석무용수,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43). 그의 발레 역사를 조망하는 갈라 공연이 4월 9일부터 사흘간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해외 스타 위주로 꾸며지는 여느 발레 갈라와 다르다. 강수진이 공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함께 출연할 무용수를 선택하고 초청하는 일도 직접 해냈다. 클래식과 모던을 아우르는 이번 무대에서 강수진은 대표작 〈까멜리아 레이디〉의 1막에서부터 3막까지의 하이라이트, 컨템퍼러리 발레 작품으로 20분 길이의 중편 〈스위트 No.2〉, 지리 킬리안 안무의 〈구름〉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까멜리아 레이디〉는 1999년 강수진에게 최고 무용수의 영예인 '브누아 드 라 당스(Benois de la Danse)' 최우수 여성무용수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겨준 작품이다. 존 노이마이어 안무의 〈까멜리아 레이디〉는 〈로미오와 줄리엣〉, 〈오네긴〉과 함께 강수진의 3대 드라마틱 발레 작품으로 손꼽힌다.

강수진의 파트너로 슈투트가르트발레단에서 활동해온 마레인 라데마케르, 제이슨 레일리, 이반 카발라리 등 세 명의 발레리노가 함께한다. 이번 무대에서 강수진은 1백1가지의 발레 동작을 연속으로 선보임으로써 발레의 매력을 발산하는 작품 〈발레 101〉을 포함해 5개 작품을 이들 발레리노 및 서호주발레단과 함께 공연한다. 반주는 앙상블 디토의 신예 멤버인 젊은 피아니스트 지용과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 피아니스트 마리카 부르나키가 맡는다.

1985년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1위 수상을 비롯해 한국 발레사에 숱한 기록을 새로 써온 강수진은 "이제 무대에서 춤출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그동안 만난 좋은 작품들을 고국 팬들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이번 공연의 기획 동기를 밝혔다. G

글 · 김지영 기자

연극 〈안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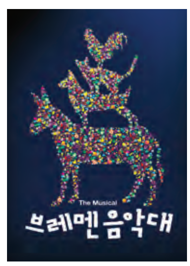
일시 4월 30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4시(매주 월요일 공연 쉼)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성인 2만5천원, 대학생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3676-3676 www.ntok.go.kr



극단 앙상블의 앙코르 공연.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 사람의 삶을 진솔하게 풀어낸 순수 창작극이다. 댄스 뮤지컬 〈스핀 오디세이〉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작가 겸 연출가 김진만 씨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연극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혼자서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당신을 꼭 안아드릴게요! 당신도 꼭 안아주세요!"라고.

어린이 뮤지컬 〈브레멘음악대〉

일시 4월 9~30일 화·목요일 오전 11시, 수·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주말·공휴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매주 월요일 공연 없음)
5월 1~9일 월~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주말·공휴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관람료 VIP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1544-5955 www.theateryong.or.kr



독일의 그림 형제가 쓴 동명의 명작동화를 원작으로 한 국내 순수 창작 뮤지컬. 호기심 많은 당나귀 '동키', 수탉처럼 노래하고 싶은 암탉 '러스티', 배려심 많고 소심한 강아지 '도기', 우아하고 고상한 음악을 사랑하는 귀족 고양이 '캐티' 등 아이들에게 친숙한 동물 네 마리가 브레멘으로 꿈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탄생 5주년을 맞은 올해는 정승호(무대), 안애순(안무), 이유숙(의상) 등 실력파 스태프가 가세해 한층 더 풍성한 볼거리를 쏟아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품선거 - 주는 손, 받는 손 모두 부끄러운 사라져야 할 범죄입니다!

작은 성의라면서, 어느 후보자가 주는 것이라면서,

절대로 부담 갖지 말라면서 내민 돈 봉투, 선물과 음식물 접대…

당선이 무효가 되고 과태료를 물게된 때는 이미 늦습니다.

더욱이 범법자까지 된다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선거를 오염시키는 검은 유혹 - 즉시 신고합시다.



신고전화

1588-3939

공명선거 홍보대사
홍 명 보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

G-20 SEOUL SUMMIT

서울 G-20 정상회의

심벌 및 슬로건 공모

2010년 11월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전 세계 20개 리더국 정상이 모여 지구촌의 발전을 논의하는 이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어 나갈 서울 G-20 정상회의.
국민 여러분께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심벌과 슬로건을 만들어 주세요.

G-20

공모분야 심 벌 | 서울 G-20 정상회의의 상징이 될 심벌 공모 부문
슬로건 | 서울 G-20 정상회의의 표어가 될 슬로건 공모 부문

참여대상 일반부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일반인 · 대학생 · 전문 디자이너 포함, 개인 또는 단체 제한 없음)
청소년부 | 초 · 중 · 고교생 등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참가방법 접수기간 | 2010년 4월 5일(월) ~ 2010년 5월 7일(금)/33일간

심벌 부문
접수방법 | 온라인 및 우편 접수(방문 접수 불가)
접수처 | 온라인 : www.seoulsummit.kr
오프라인 : (우)135-614 서울 강남 사서함 1473호
서울 G-20 정상회의 심벌 및 슬로건 공모전 운영 사무국
제출서류 | 공모전 출품신청서 1부(www.seoulsummit.kr에서 다운로드)
온라인 : 출품신청서 및 A2(420x594mm)규격의 JPEG(최대 4MB 이하)
오프라인 : 출품신청서 및 A2(420x594mm)규격의 디자인 도면

슬로건 부문
접수방법 | 온라인(www.seoulsummit.kr)으로만 접수 가능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발표 2010년 5월 14일(금)/공모전 홈페이지 게재

시상식 일시/장소(개별 통보)

구분	일반부(심벌/슬로건)	청소년부(심벌/슬로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상	1명 200만원/1명 200만원	1명 100만원/1명 100만원
기획재정부 장관상	1명 100만원/1명 100만원	1명 50만원/1명 50만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1명 100만원/1명 100만원	1명 50만원/1명 50만원
외교통상부 장관상	1명 100만원/1명 100만원	1명 50만원/1명 50만원
행정안전부 장관상	1명 100만원/1명 100만원	1명 50만원/1명 5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100만원/1명 100만원	1명 50만원/1명 50만원
참가상	1000명 모바일 문화상품권(5000원)	
입선	100명 상장 수여 및 시상식 참석	

* 위원장상 수상자들에 한해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장 참관 기회 제공

유의사항 접수된 작품은 일절 반환되지 않음

문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eoulsummit.kr 참조

주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KBS, 연합뉴스

www.seoulsummit.kr